

우리 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 성남인의 창작활동 진흥사업

예술, 태평동에서
느낀다

우리 동네 문화공영체 만들기 사업 • 성년인의 창작활동 진흥사업
예술, 태평동에서 노닐다

발행인 이대엽
이종이
편집인 노재현
기획총괄 박승현
기획진행 장석준, 서경미
발행처 성년문화재단
www.mnet.or.kr
발행일 2006. 12. 25

사진·글 이수영
디자인 좋은 날 / 서호봉
인쇄 자연비 표현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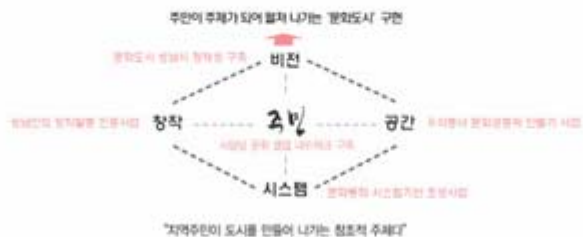
우리 동네 문화공영체 만들기 사업 • 성년인의 창작활동 진흥사업

예술, 태평동에서
노닐다

'태평4동에서 동락태평(同樂太平)하세' 프로젝트 북을 발간하며

성남문화재단 문화정책사업의 핵심적 출발점은 '지역주민이 도시를 만들어 나가는 창조적 주체'라는 모토(Motto)입니다. 그러나 이 모토는 아직 낯설게 느껴집니다. 어디가 낯설까요? 가장 크게 부딪히는 지점이 '지역주민'과 '도시'가 잘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 삶을 바꿀하는 생활과 가장 밀접한 실질적 정책결정단위는 기초자치단체 즉, '도시'이고 그 주체를 이야기할 때 흔히 '시민'이라는 표현을 너무 자연스럽게 써왔기 때문입니다. 그 자연스러움이란 정책에서 배제된, 아주 흔히 쓰는 슬로건으로서 '시민'이 항상 거론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역주민'이라고 하면 누구나 우리동네에서 알아나는 일상의 문화와 일에 대해 한마디씩 거 들고 나옵니다. '시민'이 바로 그해야 합니다. 우리도시를 문화도시로 만들어 나가는 일이 우리동네를 바꾸는 일 같이 다가와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이 간극은 단시간 내에 좁혀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좁혀진다는 것을 달리 표현하면, 시민들이 진정으로 우리도시를 문화적으로 바꾸어나가는데 창조적인 주체로 나서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간극을 좁혀나가는 주요한 출발점 중의 하나는 '동네'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놀자- 동네 한마당'을 부르며 동네 친구들과 뛰놀던 모습들이 떠오릅니다. 동네를 돌아보면 사람 사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얼굴들이 보입니다. 그 얼굴에 드라를 살의 어려움과 이웃 간에 나누는 정든 눈빛이 느껴집니다. 동네는 도시의 문제를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습니다. 동네로부터 도시문제의 해결점을 찾아들이는 것, 도시의 비전 속에 동네 주민의 행복한 삶이 살아 꿈틀거리도록 하는 것, 그 살아를 주민 스스로가 창조적 주체로서 문화적 실천 속에서 함께 참여하며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구상해 봅니다. 성남문화재단은 이러한 실천의 구체적 방도로써 2006년 1월부터 3개년 계획의 '5대 문화정책사업'을 시작했습니다.



5대 문화정책사업은 세로축과 가로축이 있습니다. 세로축은 중장기 발전계획을 세우고 도시 전체를 바라보며 어떻게 구도를 짜들어갈 것인가에 초점이 있다면, 가로축은 구체적인 동네를 중심으로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펼쳐나가는 실천적 방안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를 주요하게 바라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로축과 세로축은 어디까지나 좀 더 강조할 범전의 문제이지 핵심은 두 가지 축의 결합에 있습니다. 즉, 성남이라는 도시 전체의 문화정책과 동네의 문화적 삶이, 개개인이 가지는 문화적 취향과 도시의 창조적 기반이 되는 문화예술 커뮤니티(사람발 문화클럽)가 별개의 것이 아니라 '주민의 창조적 활동'이라는 결합점 속에 문화도시의 실행과 있다는

것입니다.

가로축의 핵심 사업은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과 '성남인의 창작활동 진흥사업'입니다. 이 '공간'과 '창작'의 두 가지 사업은 1개의 동네에서 함께 진행됩니다. 왜냐하면 동네의 공간을 문화예술적으로 재생하는 작업은 곧 주민 스스로 창조적 문화예술활동에 적극 뛰어들 때만이 그 의미가 있고 또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를 예술가와 주민이 함께 문화예술을 통해 삶의 공간을 바꾸고 스스로 창조의 주체로 나서게 하는 동네프로젝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동네프로젝트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그 동네'로부터 프로그램이 도출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06년 1월부터 4월까지의 4개월 동안 '동네로부터 만들어가는 문화도시 성남'은 어디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가를 준비하는 시기였다면, 5월부터 8월까지 4개월 동안은 동네프로젝트 기획단이 태평4동 골목길 구석구석을 거닐며 주민들과 '태평4동에서 살아가는 이야기'를 나누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태평4동의 '꼭 지나치는 골목길'을 수십 차례 오르내리며 집 한 채, 골목 하나를 다시보고 또 보았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했던 것은 처음에 보지 않았던 것들이 두 번, 세 번 뒀수가 점점 더해 갈 때마다 '태평4동 골목의 보석들'이 하나하나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태평4동 프로젝트의 모든 프로그램은 바로 그 숨어있는 보석들을 예술가들과 주민이 함께 끄집어내어 열심히 닦고 손질한 것들입니다. 9월 9일, 태평4동 골목길에서 주민들이 가장 많이 다닌 '골목시장' 한 귀퉁이에 '문화놀이터_아트클럽(Art Club)'이라는 문화예술 공방(工房)을 열었을 때 주민들은 자신의 보석들을 눈으로 확인하고서야 마음의 문을 열고 주체로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문화예술을 통한 동네프로젝트에 주민들이 창조의 주체로서 완전히 자리 잡아 나가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9월부터 11월까지 주민과 예술가가 함께 프로그램을 3개월 동안 펼치고, 그간의 과정을 정리하는 '프로젝트 북'을 12월에 발간하기까지 오박 1년이 걸렸지만 태평4동 프로젝트는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성남문화재단에서는 3년 동안 총 5개의 동네프로젝트를 진행함과 동시에 2007년도부터는 그러한 동네프로젝트를 주민 스스로 지속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작은 동네축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입니다. 골목길, 아파트, 공단, 시장, 상가 등 성남의 독특한 색깔이 담긴 동네프로젝트가 끝날 때마다 그 과정을 소상히 담은 '프로젝트 북'이 발간될 것이고, 이를 교재로 동네프로젝트 워크숍을 진행하면서 주민 스스로 동네프로젝트를 창조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성남문화재단은 동네프로젝트를 진행함에 있어, 엄밀히 말하자면 기반을 조성하는 일부분의 역할을 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창작 동네프로젝트의 핵심적 주체는 지역의 예술가들과 동사무소, 주민자치위원회를 비롯한 민·관단체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주민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하도록 성남문화재단은 문화정책의 방향과 방법을 제기하고, 동네프로젝트 지원센터의 역할을 초기에 하면서 시민동네 사업, 동네 프로젝트 교육과 전담을 위한 워크숍, '주민들의 작은 동네축제' 지원 프로그램 등을 상호 연계하여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동네프로젝트는 이제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첫 사업이라 기대만큼 아쉬움과 시행착오도 많았으며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을 현장에서 부딪히고 배우게 되었습니다. 동네로부터 만들어가는 문화도시 성남을 주민 스스로 창조해 나가는 기반을 마련하기까지는 아직도 많은 노력과 과정이 앞에 놓여 있습니다. 오히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드러난 빈 지침들을 향후 더욱 탄탄한 성과로 이어갈 수 있는 소중한 밑거름으로 삼고자 합니다.

국립+예술

놀이+예술

- 08 '태평4동에서 문학태평하세' 프로젝트북을 발간하여
- 10 목차
- 12 프로젝트 개요
- 16 태평4동 이야기
- 22 태평동 주민 인터뷰
- 24 전체 프로젝트 일정 소개
- 26 프로젝트 지도

주민+예술 | 태평4동에서 문학태평하세

- 30 01. 아뜨클리프 문을 열다
- 33 아뜨클리프의 작가들
- 34 02. 예술장터

놀이+예술 | 골목길에서 놀아보자

- 44 01. 어린이 창작기화단
- 56 작가후기
- 57 열린수업 첫 이야기
- 60 태평4동 고파 화가 이창수씨 이야기
- 62 02. 우리동네는 달라요
- 77 작가 후기

공간+예술

생활+예술

공간+예술 | 생활 공간 속에서 만나는 예술

- 80 01. 현명합터 북아루 만들기
- 84 02. 태평4동 벽화미술관
- 87 우리동네 미술관 프로젝트
- 88 작가 후기
- 90 03. 상가아트리움
- 98 작가 후기
- 100 04. 상가아트리움에 참여한 상가 주민들의 편지

생활+예술 | 지나가는 길에 들었어요

- 104 01. 화단사상식과 손바닥 정원 만들기
- 106 손바닥 정원 만들기 교실
- 108 화단 사상식
- 110 02. 칠면 움직이는 사진관
- 112 영정사진을 찍어드립니다
- 113 움직이는 사진관
- 116 03. 골목길 영화제
- 117 태평4동을 카메라에 담는다
- 118 겨울백두~! 태평4동 골목길 영화제
- 121 영화제 첫 이야기

예술, 태평동에서 노닐다

예술, 태평동에서 노닐다

- 124 따뜻한 마음을 선물한 사람들
- 128 태평동, 그리고 공공미술
- 132 언론 보도
- 133 태평 4동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

프로젝트 개요

장 • 다문화 지역공동체 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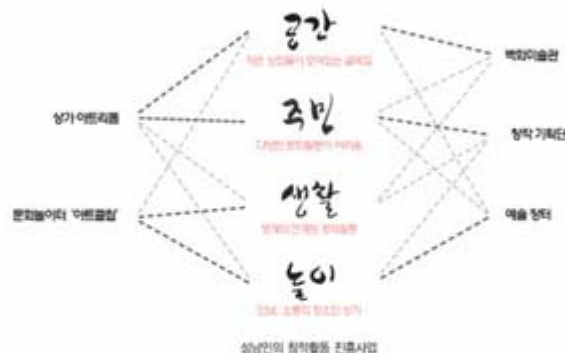
도시라는 공간은 주민, 공간, 생활, 놀이가 복잡하게 연결되는 곳이다. 그래서 환경개선사업이나 조형물 설치, 체험프로그램과 같은 단편적인 사업만으로는 문화도시를 창조해 나가기 어렵다. 기존 사업과는 차별화된 종합적인 방식으로 도시 곳곳에, 주민들의 생활 속에 문화적 양분을 공급하는 시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한 첫 번째 시도로 성남문화재단의 5대 정책사업 중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과 '성남인의 창작활동 진흥사업'을 결합한 프로젝트가 '태평4동에서 동라태평하세'이다. 주민들 삶의 기억을 축적하고 있는 태평4동의 골목길을 중심으로 주민, 생활, 공간, 놀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각각의 요소들 간의 관계를 중시하며 기획된 프로젝트로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적 가치의 재발견
2. 주민의 문화적 역량 강화
3. 지속 가능한 지역문화 기반조성

프로젝트기획단은 2006년 5월부터 태평4동 답사를 시작하여 태평4동에 존재하는 다양한 문화적 가능성들을 찾아 나섰다. 꽃길을 가꾸는 노인봉사단, 재활용 비누를 만드는 부녀회, 재미있는 이벤트를 생각하고 있던 삼점들, 동네 어르신들의 합터가 되는 평상, 상상력이 넘치는 아이들, 공동 공간에 연출된 벽화 등 생활의 지혜와 즐거움을 골목길 곳곳에서 만날 수 있었다.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은 이런 태평4동의 문화적 특징을 가지고 그 동네만의 독특한 매력을 만들어갔다.



장 • 다문화 지역공동체 형성



'성남인의 창작활동 진흥사업'은 지역주민들에게 현실에 맞는 문화예술체험과 창작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실생활에서 예술활동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그중 백화미술관은 성남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역작가들(성남 민예총)이 3~4년 전부터 구상해오던 것을 토지개발공사의 초록사 회안들이 프로그램이 지원하면서 태평4동에서 함께 펼쳐지게 되었다. 이렇게 동네프로젝트에 지역작가들이 적극 결합하는 것은 지역의 특색을 살리는 실천과 고민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태평4동에서 동라태평하세'는 공공예술적 수단을 통해 주민참여를 자극하고 자치적 문화역량의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요약할 수 있다. 나아가서 장기적으로 기존 성남 지역에서 개별적으로 진행된 마을만들기 사례를 발굴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활동을 근거로 하여 생활 속에 창의적인 문화환경을 만들 수 있는 지역작가를 발굴하고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만들어갈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하여 동네의 문화적 가치를 재발견하고 널리 인식하도록 돕고자 한다.



대원4동 위성사진

태평4동 이야기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태평4동

개설 수정구의 중앙에 있으며, 서쪽은 탄천변을 제외하고는 영장산 남쪽 사면의 구릉지에 위치해 비교적 지대가 높고 지형의 기복이 심하다. 서울로부터 진입로에 있어서 주택 및 상업의 혼잡지역으로서 성남 개척시 가장 먼저 개발된 지역의 하나로 성남출장소가 위치하였던 곳이다. 북쪽은 수정구 북정동, 서쪽은 신촌동과 접해 있으며, 남쪽 및 동쪽은 수정구 수전동 및 산흥동에 둘러싸여 있다. 2006년 11월 30일 기준, 면적 2.61㎢, 인구 19,160명, 7,528세대가 살고 있다.

유래 이 등에는 남씨면(南氏便) 및 숲골이라는 자연마을이 있었는데, 이곳 계곡 주변에 울창한 나무를 이용하여 숲을 굽는 마을이 형성된 뒤 이 일대 모두를 탈리 또는 탄동이라 불렀다. 1970년대 수도권 정비 일환으로 광주(모란)대단지가 건설되면서 서울지역 주민이 집단 이주하였고, 1973년 성남출장소가 시로 승격됨에 따라 새롭게 동을 만들면서 불인 이름이다. 당시 시정자문회의에서 '근심 걱정이 없는 태평한 지역을 만들자'는 뜻에서 생긴 이름이다.

연혁 본래 광주군 새촌면 탄동 지역으로서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시 남씨면과 독정리(讀亭里)를 병합하여 탄리(炭里)라 칭하고 중부면에 편입되었다. 1971년 9월 경기도 성남출장소로 승격되고, 1973년 7월 성남시로 승격될 때 성남출장소 수전지소와 탄리 일부를 병합하여 태평동(太平洞)이 되었다. 1975년 10월 태평1동, 태평2동으로 분동되었고, 1980년 9월 다시 태평1동을 갈라서 태평1동, 태평3동으로 개편하였다. 1989년 5월 시의 구제(區制)에 따라 수정구 관할이 되었고, 1990년 1월 태평2동을 태평2, 태평4동으로 분동하여 오늘에 이른다.

(출처:다시읽 성남문화대전)





너도 나도 감색인
벽돌집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곳,
별로 특별할 것도 없는,
하지만 아주 특별한 곳,
태평동



지극히 서민적인,
하지만 문득 문득 숨 막히게 이국적인 곳,
골목을 따라 오르막길을 가면 늙은 건물 숲 대신
가장 먼저 하늘이 맞닿아 있는 곳,
태평동



제대로 된 놀이터
 하나 없는 좁은 골목길 천지에서도
 목청껏 떠들고 웃을 수 있는 아이들이 살아가고,
 그 아이들을 하얀 연기 속으로 몰고 다니는 소독차가
 여전히 다니는 곳, 킥보드를 타고 골목길을 휘젓는
 조무래기들과 바로 뒤의 트럭이 경적을 울려도 놀라지 않고
 태연하게 노는 동네방네 아이들의 공간, 태평동. 20평 부락
 자이에서 담벼락에 뽀뽀뽀뽀글글을 쓰고, 전봇대에 딱 하니
 시계를 달아놓은 사람들... 예술은 멀리 미술관 속에
 있는 것이 아닌, 내 생활 속의 작은 틈을 깨는 것임을
 골목길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곳.

태평동

태평동 주민 인터뷰

가정: 태평동 주민 인터뷰

“강원도에서 왔고 태평동에 30년 정도 살았어요. 애들 공부 시키려고 서울로 들어가려다가 돈이 부족해서 못 들어가고 성남으로 들어왔지요. 강원도에서 애들 아버지까지 농사짓고 돈도 보내주고 그랬고, 애들 어느 정도 크고 나서는 제가 노동 일 다녀서 생계를 꾸렸어요. 처음에는 애들을 낳두고 나 먼저 들어와서 땅 사서 집 짓고 살고 나중에 애들을 올려왔지요. 지금은 다들 결혼 시키고 분가해서 살고 있어요. 재개발 이야기 나온 지는 오래 됐는데, 모르겠어요. 재개발 되면 좋겠지만, 세 내준 사람들 다 내보내고 하려면 힘드니까 된다 해도 걱정이예요. 재개발 하면 전세금 받은 거 돌려줘야 하나까 형편이 되는 사람들은 괜찮게 생각하지만 넉넉하지 않은 사람들은 힘들어하지요.

태평동은 처음에 철거민들이 들어온 동네였어요. 새까줄로 20평씩 나눠서 줬는데 그 타를 팔아서 나가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저는 그 집터를 사서 집 짓고 살았지요. 그때 돈으로 10만원 정도 했던 거 같아요.

태평동에는 언덕 같은데 벤치 같은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런 거나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요.”

-박춘자 89세

“고향은 전라북도 익산인데 태평4동에 온지는 38년 됐어.

과거에는 살기가 막막했는데 지금은 많이 살기 좋아졌지. 지금은 이 바다에 시멘트이지만 과거에는 야산이었지. 처음에는 산에 올라가서 서울만 쳐다보고만 있었어. 가고 싶어서 감수도 없고 돈도 없고 그래서 그냥 여기서 살았어. 그래도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 과거에는 설 곳도 없었고 설 시간도 없었지만 지금은 설 장소도 제법 있고 여유도 많이 생겼지. 그때는 너무 어려웠어. 오죽하면 산모가 아기를 낳고 잡아먹었다는 이야기도 있었어. 그만큼 생활이 어려웠다는 것이지. 지금은 살기 좋지. 얼마나 살기 좋다고 요새 아파트들 많이 선호하는데 우리는 아파트 소용없어. 아파트는 비둘기장이나 머천가지야. (웃음)

과거에는 슈퍼라고 안하고 상회라고 했지. 예전에는 그래도 장사가 잘 됐는데 요즘은 대형마트가 생겨서 사람들이 거기 가서 물건을 한 보따리 사와, 과거에는 필요한 만큼만 사고 그랬는데 지금은 낭비가 심해.”

-송정슈퍼 할머니 89세 1949년 태생

가정: 태평동 주민 인터뷰

“부산에서 사업에 실패해서 아이들 공부도 시키고 새로운 일을 해볼까 하고 부산에서 올라와서 30년 좀 넘었지. 처음에 들어와서 집터를 사서 성남 초창기 생길 때부터 여기에 살았어. 여기서 세박소 한지 오래됐지. 근데 예전처럼 사람들이 세박소를 안 해. 성남에 들어와서 세박소 운영하기 전에는 일본으로 돈벌러 나갔는데 내가 너무 오랫동안 집을 비워놓으니까 가정이 파괴됐어. 그때 당시 사우디아라비아나 해외로 나가는 사람이 아니면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건축노동일을 많이 했어. 성남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반 이상이 건축노동자라고 봐야 돼. 지금 세박소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많아. 세박소용 숄벤트 회수가 의무화가 되서 숄벤트 회수기를 설치하지 않으면 업장을 폐지하라는 거야. 기계 값이 400만원 이라는데 왜 자꾸 나 같은 서민들한테 이런 요구를 하는지 모르겠어. (웃음)

예전에는 사람들이 단합이 잘되고 뭉 • 뻘을 통해서 청소를 하거나 하면 전부 나와서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연락을 해도 한 명도 나오는데 사람이 없어. 단합이 안 되지. 성남에는 노인인구가 많아. 노인들이 쓸 수 있는 시설을 많이 확충해주면 좋겠어. 노인정이 있기는 하지만 시설이 그리 좋지는 않아. 노인들이 점심식사라도 할 수 있게 급식도 하는 노인정이 생겼으면 좋겠어.”

-송종식 89세, 모친(사) 94년 12월



전체 프로젝트 일정 소개

본 프로젝트는 2006년 5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진행됩니다.

본 프로젝트는 2006년 5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진행됩니다.

2006

5

6

7

8

9

10

11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기획팀 회의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기획팀 회의

기획단 태평동 분석 및
접근전략 보고

아트클럽 공간 리모델링 (5월 15~4월)
골목길 영화제 영상물 촬영 및 편집 (5월 5~15일 15일)

사업 대상지 선정 및 답사

태평동 분석 및 접근 전략수립

태평4동 주민 인터뷰

아트클럽 오픈 (5월 25일) 쪽아루 제작 및 설치 (10월 25~11월 30일)

상가아트트리플 (5월 25~11월 25일)

어린이 창작기획단 (5월 15~11월 15일)

우리동네는 달라요 (5월 15~11월 25일)

쪽아루 만들기 접수 (5월 15~11월 30일)

움직이는 사진관 (5월 25~11월 25일)

화단사상식 홍보 (5월 25~11월 31일)

벽화 미술관 신청접수 및 광고 (5월 25~11월 25일)

벽화 미술관 제작 및 설치 (5월 25~11월 15일)

골목길영화제 (10월 20~25일)
예술장터 (10월 25~11월 15일)
손바닥 정원 만들기 (10월 25~11월 15일)
'예술, 태평동에서 노닐다 워크숍' (10월 25일)

화단사상식 (11월 15일)

참여 작가 평가모임 (11월 30일)

프로젝트 기획단 구성 (5월 15~11월 25일)
김용익, 김태현, 김가수, 임홍순,
전용석, 성남문화재단 문화기획부

14
30
25



- 백화아울렛
- 홈플러스
- 아르키볼 상가
- 오빌
- 아르볼빌
- 움직이는 사진관
- 행사무소
- 학교
- 아파트
- 교회
- 세미출판고

국민+예술

태평4동에서 동적태평하세

01. 아도콜린 문을 열다
02. 예술당이다



아트클럽, 문을 열다



2006년 9월 9일, 앞으로 두 달 동안 태평4동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작가들의 작업실 겸, 아이들의 문화 놀이터, 주민들과 예술가들이 소통하는 공간이 될 아트클럽이 문을 열었다.

상점들이 늘어서 있는 골목에 정체를 알 수 없는 낯선 공간이 들어서자 태평4동 주민들은 궁금해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경계하기도 했다.

"새로 생긴 가게요?"

"여기는 도대체 뭐 하는 곳이에요?"

지나가는 사람마다 물어보는 똑같은 질문에 아트클럽 작가들은 이렇게 대답한다.

"누구나 언제든지 예술작업을 할 수 있는 태평4동 문화놀이터입니다."

클럽을 종이에 끼웠을 때처럼 부드럽게 흔적 없이 예술가와 주민들이 소통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지은 이름이 바로 '문화놀이터 아트클럽'이다.

기간 2006. 9. 9~10. 26

위치 태평4동 농선길 1673번지 (태평마을선과 낙원선기 사이)

크기 약 7평

이용대상 태평4동에 오고 가는 모든 사람들

용도 어린이창작기획단 토요일 수업 교실

태평4동 프로젝트 참여 작가들의 작업실

자녀기는 어린이들의 문화놀이터

화단시상식 공모 접수처

여러개 명정사진을 문미하는 할머니의 생일소

작가들의 작업과정을 전시하는 갤러리

교통수단 전문화가이지 태평4동 주민인 이장수 씨의 개인 작업실

성남문화재단과 작가들의 회의실

작가들이 발생작업을 할 때 장을 치는 숙소 7인방 동

문 • 1214-1111111111111111



아트클럽

CLUB에서 주민과 예술을 연결하는 커뮤니티 공간
이웃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려는 열정을 담아 고집과 정열로 꾸민 공간
한여름의 열기를 채우는 시원한 공간을 선사하는 문화 놀이터, 태평4동 아트클럽



'아트클럽'의 작가들

지저분하고 삭막하기만 했던 아트클럽 공간을 하얗게 칠하고 아이들이 앉아서 놀 수 있도록 바닥도 새로 까는 등 대대적인 리모델링 공사를 마친 아트클럽 작가들. 유다희를 비롯한 작가들은 참여와 소통, 관계 속에서 문화적 풍경과 환경을 만들 수 있는 문화예술 사회를 위해 문화 설계, 교량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안하기도 하는 공공미술 작가들이다. 이번 프로젝트에서 작가들은 '아트클럽'이란 키워드로 태평4동 주민들과 예술을 매개로 소통하며 함께 웃고 웃으며 가을을 보냈다. 아이들과 길거리에서 그림을 그리며, 주변 상가의 아줌마 아저씨들과 떡을 주고 받으며, 아트클럽에서 밤을 보내며, 태평4동의 아침을 맞으며...

참여작가 유다희(공공미술리더), 강주연, 김지영, 김지은, 유다원, 임유진, 전유미, 전영은, 최승미, 하승연, 임용현, 송부영, 김가을, 황영숙, 백효진, 김태준

"공공미술을 단순히 벽화나 조형물을 만들어낸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꼭 그런 형태로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길을 걷다가도 문득 눈에 띈 그림이나 풍경에 잠시 발길을 멈추게 하는 생활의 여유를 만들어 내는 작업이 바로 공공미술입니다."

유다희 (공공미술리더 대표)

"전을지 역시 공공미술을 해야하기에 이런 제의가 나온다. 미술 형식에 주권을 맞춰 환경미술, 환경주형미술이 되고, 미술의 사회적 참여를 통해서 공공미술이, 공공미술이라고 한다. 일찍이 미국의 형식과 오버랩을 무언가로써, 공공미술이 지평이 놓이는 장소와 개념적으로부터 구현하는 것이라 한다. 후자는 미술과 공동체의 관계를 다각도로는 보면 중시되고, 오버랩하는 주제와 대안, 소통 방식에서 공공성을 표출한다. 공공미술은 순수의 형식이나 사회 형식에 내몰릴 수 있다. 공공미술의 진정한 의미는 형식과 내용을 아우르고 세상의 필요에 따라 변화하는 데 있다. 동시에 고정된, 정해진 것은 어떤 물자의 지속적인 변화만을 낳는다. 공공미술의 기본성은 무엇보다도 인간성이야고, 어떤 어떤 변화 가능성과 수용성을 위한 것이다. 공공미술은 움직이면서, 세상을 향해하고 소통하는 미술다. 공공미술은 몸서리, 연동한다. 공공미술은 협동이다. 곧 공성과 미술, 사람과 자연 사이의 소통이면서 둘 다 살리는 균형을 찾는다는, 공공미술의 정의는 이 연동과 균형을 가늠해야 한다."

2 예술장터

약 2개월간 아트클립에서의 프로젝트를 마무리하며 태평4동 센터길을 중심으로 일주일간 왓지컬한 예술장터가 열렸다. 아트클립 공간은 갤러리로 변신해 그동안의 아트클립의 기록을 담은 사진 전시와 상가아트리움에 참여했던 상점 주인들이 아트클립 작가들에게 보낸 편지, 그리고 김가을 작가의 태평동 스케치 전시가 일주일간 계속 되었다. 그리고 2회에 걸쳐 아트클립 작가와 아이들이 함께하는 미술 워크숍과 태평4동 투어가 진행되었다. 예술장터 오픈을 알리는 21일에는 아트클립이 문을 열던 날처럼 아이들에게 오색 풍선을 나눠주어 또 한 번 태평4동 아이들을 열광하게 했다. 늦은 시간까지 오고가는 주민들이 아트클립에 들어와서 전시되어 있는 사진을 유심히 살펴 보기도 하고 사진에 아는 사람이 등장한다며 재미있어 하기도 했지만 태평4동 프로젝트의 마무리 행사라는 것에 작가들과 주민들 모두 아쉬워했다.

준비 2006. 10. 20 오픈 준비

일정 10. 21 오후 1시 | 오픈식

1시~5시 | 아트노움

2시~3시, 4시~5시 | 태평4동 투어

3시~4시 | 오늘의 아트클립 작가 만나기 (김가을 작가)

6시 | 거리 퍼포먼스 (김숙진, 김형식 작가)

10. 24 오후 1시 | 오늘의 아트클립 작가 만나기 (백현진 작가)

문 • 다들 아트클립을 봤어?

문 • 다들 아트클립을 봤어?

예술장터 오픈 준비

2006. 10. 20 저녁 9시,

아트클립 작가들은 늦은 밤까지 예술장터 오픈 준비에 여념이 없다. 상가아트리움을 한 가게마다 하얀 클립이 그려진 빨간 접시를 달아주고 아트클립 티셔츠를 나누어 드렸다. 그리고 그동안 아트클립 작가들의 작업실이자 동네 아이들의 문화놀이터로 사용했던 아트클립 공간을 갤러리로 꾸미기 위한 작업이 한창이다.





태평동 아이들은 풍선을 좋아해

태평4동 아이들은 풍선만 보면 신이 난다. 예술정터가 시작된 오후 1시부터 아트클립 공간은 하루 종일 풍선을 받기 위해 온 아이들로 바글거린다. 분주한 아이들을 잠재우기 위해 즉석 노래자랑이 벌어졌는데 다들 수줍어하는 것 같더니 동시에 3명이 일어나 각자 자기 노래를 부르기도 했다. 참 예쁜 태평4동 아이들.

문 • 태평동 아트클립 공간



문 • 태평동 아트클립 공간

오늘의 아트클립 작가 만나기 I

김가를 작가와 함께한 워크숍. 먼저 큰 도화지에 하얀 양초로 보이지 않는 그림을 그리고 그 위에 먹을 칠해 야지만 그림이 나타나는 마술 그림 그리기. 아이들은 마술 그림이라는 이름만으로 호기심에 차 양초로 하 나라도 뭘 더 그려보려고 안달이다. 그리고 먹을 칠해 자신의 그림이 하 양게 나타나자 정말 마술로 아는지 탄성을 지르며 신기해한다. 하지만 어디에나 모두들 신기해 할 때 꼭 이 렇게 말하는 아이가 하나씩 있다. “난 저렇게 될 줄 이미 다 알고 있었다고요~!” 물론, 태평4동에도 그런 아이가 있 었다.

오늘의 아트클립 작가 만나기 II

10월 24일에는 백현진 작가와 함께 한 아트북 만들기 워크숍이 있었다. 십여 명의 아이들이 모여 A4종이를 오려 팝업북 만들기와 작은 수첩 만 들기를 했다.

위: 아이클립 작가들, 행사준비로 그리고 이웃이씨가 함께한 예술전시
 좌: 황병수 작가가 작품으로 만든 작품들
 우: 아이클립 작가들 사진으로 만든 벽지와 수첩
 위: 아이클립 전시회 내부

위: 아이클립 작가들



아트 노점 샘터길 입구에서 아이들과 함께 했던 아트노점, 그동안 작가들이 작업한 작품들과 헬기와 자동차 등 '교 통수단 전문화기' 이정수씨의 그림과 아이들이 집에서 가지고 온 소소한 것들(손거울, 쓰다만 수첩, 끊어질듯 한 머 리끈 등)이 장터에 나왔다.

아트클립 갤러리 <아트클립 갤러리>로 변신한 아트클립 공간에는 하루 종일 주민들이 들어와 그동안 진행되었던 사 전들과 작가들의 작품을 감상했다. 사진을 보시던 한 아주머니께서는 "어머, 오토바이 아저씨도 나오고, 이 양반도 나오네~! 혹시 내 사진은 없어요?"라며 주변사람들의 일상적인 모습이 갤러리에 전시된 것에 대해 재미있어 하셨 다. 그리고 아트클립 작가들의 활동을 꼭꼭히 도와주시며 함께 페인팅칠을 했던 재임월드 아저씨께서도 전시를 구경 하시며 "이제 태평동에서 완전히 나가는 거냐"며 아쉬워하셨다. 서운하시냐고 묻자 "전혀 서운하지 않다"고 당당히 말씀하신다. 하지만 아트클립을 나가시며 "그래도 송별회나 한번 해야지.."라며 발끝을 흐리셨다.



태평 4동 2006 ART Clip (Art + Market)



한 해를 4등 후에 작가가 아파들어 그동안 대명동 피로제비가 온행시였던 상점과 생지갈 곳으로 돌아와, 2008 일년을 끝나는 시간을 기념하고 거리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 김지선, 김형서 작가

거리 퍼포먼스

예술장터 오른식이 있던 10월 21일 저녁, 퍼포먼스가 있다는 얘기에 아뜨클럽에 풍선 받으러 왔던 아이들은 풍선을 손에 쥐고 샘터길로 가서 모여 앉았다.

아이들 "퍼포먼스가 뭐예요?"
유다희 작가 "몸으로 그림 그리는 거예요~"
아이들 "그림은 손으로 그리는 거 아니어요?"
유다희 작가 "몸으로도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바로 포치열전 아주머니께서 음악을 틀어주시고 샘터길에서는 김숙진, 김원식 작가의 흥겨운 춤판이 벌어졌다. 아이들은 거리에서 벌어지는 처음 보는 퍼포먼스에 눈이 휘둥그레지고 주민들도 샘터길을 울리는 음악에 순식간에 몰려들어 함께 춤을 추었던, 아름다운 밤이었다.



출처: 김지선, 김형서 작가



놀이+예술

꿈속길에서 놀아보자

- 01. 어린이 창작기행단
- 02. 우리동네는 달라요



아트클럽 어린이창작기획단

태평4동 어린이들과 함께하는 토요일 열린교실

매주 토요일 점심시간이 지나면 태평4동 조무래기들이 하나 둘 '아트클럽' 으로 온다.

다들 어떻게 알았는지 한 손에는 준비물을 들고 다른 한손으로는 동생이나 친구 손을 잡고 아트클럽에 '바르' 하기 위해 들뜬 얼굴로 찾아온다. 이곳에 오는 아이들은 아트클럽에 처음 왔다고 하는데도 어디선가 본 듯한, 대부분 낯익은 얼굴들이다. 그도 그럴 것이 상가들이 몰려있는 샘터길을 중심으로 BYC 속옷 가게 두 딸도 오고 우리농산물 가게 큰 딸도 오고 슈퍼 할머니네 손녀도 오고 닭꼬치 전문점 꼬치열전 아들도 오고 이발소 조카 정수씨도 오고 월드마트에서 3분 카레 사가던 남매도 오니, 오며 가며 낯이 익을 수밖에. 어떤 낯은 마흔 명이 넘는 아이들이 한꺼번에 1시 수업에 찾아와 몇 명은 아쉽게 돌려보낸 적도 있을 정도로 아트클럽 토요일 수업의 인기는 대단했다.

기간 2006. 9. 16 - 10. 21 (매주 토요일 2회)
오후 1시 수업 |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이
오후 3시 수업 | 초등학교 고학년 어린이

장소 아트클럽

참여작가 화승이

수업일정표 9. 16 "나는 000입니다" 나를 알아차리기
9. 23 "내 소중한 이야기" 일일 책방 : 동화책 만들기
9. 30 "CD 재현음으로 우리 집 공간 꾸미기"
10. 14 "내 손으로 만드는 예술책지"
10. 21 "함께하는 예술장터"



첫번째, 나는 000 입니다 9월 16일 수업

어린이 창작 기획단 첫 수업시간.

자신을 소개하는 이름표를 만들어보았다.

원하는 색의 종이에 원하는 모양을 그려 오리고 자신을 나타낼 수 있는 그림과 글을 자유롭게 써본다. 완성된 이름표는 코팅을 한 후 구멍을 뚫어 털실을 연결해 아이들의 목에 걸어주었다. 3시 수업에는 어머니와 초등학교 6학년인 딸이 함께 수업에 참여하기도 했다. 어머니께서는 오랜만에 그림을 그리니 느낌이 새롭다며 앞으로 태평4동에 아트클럽이 오래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셨다.

9월 16일 수업 현장

9월 16일 수업 현장

- ① 완성된 이름표는 PVC 재질의 자켓과 무지개색 끈을 이용해 쉽게 대입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었다.
- ② 완성된 이름표를 만드는 아이들
- ③ 작업 중인 아이들. 그림을 그려보는데 있어서는 엄마와 초등학생과 6학년인 딸

"나에 대해서 이렇게 그림 그려보는데 알까만인지 모르겠어요. 내 이름표 만드는 것도 그렇고... 내 이름이요? 하하, 이름이 좀 작아해서 말하기 부끄러운데... 그건 그렇고, 태평동에 이런 곳이 생기면 진짜 좋네요."

9월 16일 수업 현장



두번째, 내 소중한 이야기 9월 23일 수업

아트클립 토요일 열린교실의 소문이 온 동네에 퍼졌는지 이날 1시 수업에는 40여 명이 넘는 아이들이 한꺼번에 몰려 아트클립을 가득 채웠다.

결국 몇몇 아이들은 돌려보내기도 하고 다음 수업 시간인 3시에 다시 오라고 타일러 보낸 아이도 있고, 계획에 없던 4시 수업까지 만들어 1시 수업에 참여하지 못한 아이들의 마음을 달래주었다. 아트클립 공간을 꼭 채워 받 디딜 틈도 없었던 이 날 수업은 자신이 좋아하는 동화책을 가지고 와서 표지를 새롭게 바꾸어보기도 하고 현 동화책을 새 동화책처럼 바꾸는 시간. 한지와 색깔이 있는 비닐을 이용해 책 크기에 맞추어 오리고 책에 붙인 후 마음대로 표지를 꾸며주면 완성.

진도가 빠른 아이들은 집에서 가져온 동화책 3권을 똑딱 다룬 동화책으로 바꾸었다. 아예 동화책의 제목을 바꾸어버린 아이도 있었고 새로 바꾼 동화책이 이전 모양보다 별로라며 들어내고 다시 작업을 시작하는 아이도 있었다.

출처: 아트클립 열린교실



세번째, 헌 씨디를 이용하여

집 안에 이름표 달아주기 9월 30일 수업

1시 수업

아트클럽 열린교실 새 번째 시간.

지난 주에 넘쳐난 아이들 때문에 이번 시간부터는 수업에 오는 아이들을 선착순으로 제한했다. 이 날은 헌 씨디를 이용해서 아빠, 엄마, 화장실, 동생 방에 달 문패를 만들었다.

씨디를 가져온 아이들도 있었지만 안 가져온 아이들을 위해서는 기증받은 씨디를 나누어 주었다. (상가 아프리카에 참여하고 있는 한마을 아주머니께서 수업 일정을 보시고 손수 안 쓰는 씨디를 챙겨주셨다) 만드는 방법은 간단하다. 미리 페인트를 칠해 놓은 씨디 위에 글씨를 쓰고 원하는 모양으로 그림도 그리고 스티커를 올려 붙이면 완성!

3시 수업

원래 3시 수업은 1시 수업과 동일한 내용으로 진행되지만, 이 날은 특별히 3시 수업의 고학년 아이들과는 벽화 작업을 했다. 태평4동 샘터길이 시작되는 입구의 지저분한 벽에는 샘터길이란 이름에 어울리게 예쁜 물고기를 그리기로 했다. 아트클럽에서 모인 아이들뿐만 아니라 샘터길을 오가는 어린이들도 참여해서 각자 상상의 물고기를 그렸다. 이 날은 (MBC 문화사해)와 (SBS 8시 뉴스)에서 촬영을 온 날이어서 아이들은 어찌면 내 얼굴이 TV에 나올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에 더욱 신나게 그림을 그렸다. 태평4동 말괄량이 소녀 3인방은 자기들도 TV에 나오면 출연료를 꼭 달라며 PD에게 배를 쓰다가 "너희 자꾸 그리면 편지 해버린다"는 말 한마디에 제발 TV에 나오게만 해달라고 우는 시늉을 한다.

문 • 다들 나한테 물어봐서 걱정

문 • 다들 나한테 물어봐서 걱정

수업에 참여한 형제 형이 동생이 인형거울 도와주고 있다.
자신은 물고기 전대다.





네번째, 예술액자 만들기 10월 14일 수업

네번째 수업은 아이들이 집에서 가지고 온 액자나 박스종이와 시트지, 아크릴 물감을 이용하여 새로운 예술 액자를 만드는 시간이었다. 안 쓰는 상자 종이를 알맞은 크기로 오리고 사진을 붙여서 꾸며도 되고 사진없이 그림을 그려서 액자를 만들기도 했다. 완성된 액자는 100인 100색. 태평동 아이들의 그림을 보노라면 기발한 상상력과 색감이 마치 피카소의 그림을 연상시켰다. 몇 십 년 후에 태평동에서 아트클럽 출신의 '한국의 피카소'가 나오는 것은 아닐까?



태평동 아트클럽 수업 결과물

다섯번째, 예술장터 10월 21일 수업

이 날은 아트클럽 작가들과 아이들이 집에서 안 쓰는 물건이나 자기가 만든 물건들을 가지고 나와서 샘터길 입구에서 작은 벼룩시장을 열었다. 도화지에 그린 그림들을 오려서 가지고 나온 아이도 있었고 하얀 인형을 테직으로 색칠해서 나온 아이도 있었다. 물론 큰 수익을 올리지 못하는 장터였지만 아이들은 처음 무엇인가를 팔아 돈을 버는 소중한 체험을 할 수 있었다.



태평동 아트클럽 수업 결과물

작가 후기

매주 수업을 진행하고 아이들과 친해지기 시작하면서 불리게 된 이름이 **“아트클럽 선생님”**이다.

아트클럽 선생님이로 불리며 아이들과 인사를 하면서 지낸 약 두 달간의 시간은 내가 아이들과 함께 상상력과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수업하는 나를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태평4동 아이들을 보는 것이 나에게도 작은 보람이었다. 태평4동 아이들은 다른 곳의 아이들처럼 ‘태평명’, ‘변호사’, ‘의사’와 같은 꿈을 꾸지는 않았지만 그런 꿈을 보다는 항상 오늘 뭘 먹고 어디를 갔다 왔는지, 오늘은 어느 친구네 집에 가서 어떤 것을 할 거라는 현실에 대한 생각이 많은 것 같아 보였다.

그래서 그런지 그럼에는 꾸밈이 없고, 소박한 그림들이 많았다. 그래서 아이들이 더 예뻐 보였을까? 자그마한 것에 좋아하고 나에게서는 단순히 그냥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었어도, 아이들에게는 정

말 소중한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 ‘좀 더 잘할 것’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아이들은 우리 동네에 하나의 재미난 놀이터 같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곳이 생겼다는 사실에 친구들도 데려오고, 아트클럽이 아이들 사이에서 이야깃거리가 되어가는 풍경이 지금도 생각난다. 2개월 동안의 수업, 그리고 그 수업을 더 이어가지 못하는 것이 무척임해 보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아직도 마음이 무겁다. 아이들은 잠시 꿈을 꾸 것일까?

어느 날 갑자기 선생님들은 작별인사를 하고 떠났다고 아이들의 기억에 그렇게 남으면 어떡할까하는 생각에 아직도 마음이 편하지 않다.

아직도 아픈한 녀석들... 나에게 “선생님! 나중에 태평4동에서 미술학원 차려세요!”란 말이 귓가에 맴돈다. 보고 싶은 아이들, 군것질하면서 해맑게 지나가는 아이들~!

최승미 작가



열린교실 뒷이야기

열린교실 운영을 맡은 최승미 작가

아트클럽 두 번째 열린교실에 호기심으로 입을 반쯤 벌리고 수줍게 들어온 6살 세영이.

피노키오 동화책을 가지고 와서는 초등학생들 틈에 끼어 암전하 있어 한바디도 안하고 열심히 수업에 참여하고 돌아간 해맑은 얼굴이 인상적이었던 아이다. 하지만 동화책 만들기 수업 이후, 세영이를 다음 수업에서는 한 번도 볼 수 없었다. 그러다 우연히 태평4동에서의 프로젝트가 마무리 될 즈음 ‘손바닥 정원 만들기’ 수업에서 세영이 엄마를 만날 수 있었다. 그동안 세영이가 왜 수업에 안 왔는지 안부를 묻자 세영이 어머니께서는 안그래도 세영이가 아트클럽에 너무나 가고 싶어 했다고 한다.

아트클럽에서 토요일 수업이 있을 때마다 세영이네 식구들이 할머니댁에 가야했기 때문에 수업에 참여할 수가 없었다고... 할머니네 집에 갈 때마다 세영이는 아트클럽에서 나눠 준 수업 일정표 보며 자기는 아트클럽에 가야하니 자기 혼자 집에 두고 엄마랑 아빠만 할머니네 가라고 태를 썼다고 한다. 세영이 엄마는 그때 동화책 수업 한번 갔을 뿐인데 세영이가 참 재밌었노라고 신기해하신다. 그리고 일정표를 보며 “예술장터는 한반밖에 안 열리는 데 나는 할머니네 가야해서 장터에도 못 나가잖아, 나 예술장터 가야하는데...”라며 내내 아쉬워했더라. 그리고 생터길 초입에 작가들과 아이들이 함께 그려놓은 물고기 그림들을 보면서 아트클럽 선생님들이 그런 거라며 반가

워하며 “선생님들이 언제 왔다갔다?”하며 궁금했다는 아이, 6살 세영이. 그렇게 오래불망 아트클럽을 그리워하던 세영이.

마침 10월 24일(화)에 백효진 작가와 함께하는 북아트 수업이 있던 날, 아트클럽에서 아이들과 하는 마지막 수업이고 해서 손바닥 정원만들기 신청서에 적혀있었던 세영이 엄마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마지막 수업이 있으니 세영이를 보낼 수 있으면 보내달라고 했다.

결국 세영이는 아트클럽 수업이 있다는 말에 미술학원(?)을 빠지고 아트클럽에 ‘하트’를 하러 왔다. 집에서는 아트클럽~ 아트클럽~ 패쓰고 노래를 불렀다는 세영이는 선생님들 앞에서는 여전히 수줍어했다. 하지만 세영이의 미소에서 왠지 모를 만족감이 넘쳐났다.



10월 14일 토요일.

소장! 오늘 처음 액자 붙다.
정말 재미있었다.
나도 다음에 만들어서 친구들에게
도요일 미제일후나

10월 16일 월요일

201



악수만
내친다면
애지
재활은
것이다.

2006년 9월 23일.

저는 오늘 아트클레이를 두 번째로 만들었습니다.
선생님들께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정말 기쁘고
그런데 내 마음을 표현합니다.
아트클레이로 선 생님들께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합니다.
다들 잘합니다.

선생님들께 감사해요.

가르쳐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아트클레이를
아름답게
마니와야지.

아름답게
2006년 9월

2006년 9월 16일 토요일...

나는 다들 어너를 따라와
나도 이 하 손에 붙다 그러고
재밌고 신나다 놀이반길이다.

아빠가 꼭 채죽 면줄것
선생님 드차 생애다.



2006년 9월 23일입니다



두정주지매들 1015
불광도 날도 이즈음



여러분
그동안
다들
많다.

태평4동 괴짜 화가 이정수 씨 이야기

열린교실의 또 다른 학생



본 · 디자인 · 미술교육 · 미술

매일 아트클립을 찾아와 비행기, 헬리콥터, 자전거, 탱크 등 주로 탈 것을 전문으로 그리는 '교통수단 전문 화가' 이정수 씨(34). 그는 흔히들 말하는 정신지체 장애인이다.

항상 하고 싶은 이야기가 넘쳐나 아트클립을 지나는 길에는 들러서 작가들에게 이런 저런 이야기도 하고 종이와 펜만 있으면 책상에 자리를 잡고 앉아 그림을 한 두 장씩 꼭 그리고 가신다. 이정수 씨가 처음 아트클립에 왔을 때 그의 디테일한 헬리콥터 묘사에 작가들이 다들 놀라며 어떻게 이렇게 잘 그리시냐고 묻자 왕년에 민간 헬기를 조종했다고, 헬기를 조종하다가 불의의 사고를 당해 지금처럼 정신이 왔다 갔다 한다고... 어쩐지 헬기를 정말 세부적으로 잘 그렸다. 게다가 비행기의 기종이나 기타 자동차에 대해서 너무나 박학다식했다. 이렇게 하루 하루 왔다갔다 하시면서 그린 그림들도 많아져서 아트클립 한 칸에는 정수 씨의 그림을 전시하는 코너도 생겼고 예술장터 오픈 하는 날에는 아트클립 앞 이발소(이정수 씨의 이모부가 하시는 가게에서 이정수 씨의 개인전을 열었다. 요즘은 여자친구랑

사소한 일들로 자주 싸워서 고민이라며 아트클립에 와서 그림을 그리며 하소연하기도 했다. "내가 여자친구한테 꽃무늬 예쁜 양말을 선물했는데 말이에요, 글썽 곰돌이 그려진 거로 바뀌 오해요. 그래서 싸웠잖아요." 정수 씨는 여자친구 뿐만 아니라 정수 씨를 놀리는 동네아이들 과도 종종 싸운다. **그래도 아이들을 위해서 태평4동에 '꽃이 피어있는 놀이터'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정수 씨.

정수 씨의 이모부의 말에 의하면 헬기 조종이고 뺏기고 다 거짓말이라고 한다. 하지만 진실은 아무도 모르는 일이다.

정수 씨의 말대로 왕년에 멋지게 헬기를 조종했을 거라고 믿고 싶다.



본 · 디자인 · 미술교육 · 미술



하와이 동네를 한바퀴 해주시고 감사해요. 좋은 지을 잘보내세요 그 동안 감사했어요. 아트클립 사람들 미술이 못맛을 갑니다.



우리 동네는 달라요

금빛초등학교 어린이들과 함께 우리 동네 꾸미기

태평동 금빛초등학교의 수업을 마치는 종소리가 울린다.

실내화를 갈아 신고 학교를 빠져나온 아이들이 태평4동 골목골목에 나타나 동네는 잠시 시끌벅적 활기를 띤다. 태평본식집에서 삼삼오오 오뎅과 고치, 떡볶이를 종이집에 담아 먹는 아이들, 문방구 앞 오락기에서 열심히 단추를 누르며 정신이 팔린 아이들, 200원을 넣으면 자동으로 설방이 나오는 '달고나' 자동화(1)기계 앞에 줄을 선 아이들... 하지만 자유시간도 잠시, 무거운 책가방을 집에 내려놓지도 못한 채 각자 영어 학원, 컴퓨터 학원, 산수 학원으로 흩어지고, 해가 지고 나서야 아이들은 어둑해진 태평동 골목 사이사이를 돌아 집으로 간다. 이들의 나이 적어야 여덟 살, 많아야 열세 살. 이 아이들에게 태평동의 골목은 어떤 기억으로 남을까.

이은정, 정은영, 김규동, 박기범 4명의 작가와 십여 명의 금빛초등학교 아이들이 함께한 '우리 동네는 달라요' 프로젝트는 진정한 교육이란 서로간의 '소통'과 '놀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그 '놀이'가 곧 '예술'이고 '예술'이 곧 '놀이'라는 것을, 골목길을 도화지 삼아 아이들과 신축하며 가파른 골목을 문화공간으로, 놀이터로 바꾸며 아이들은 말한다.

"선생님, 우리 좀 더 하면 안돼요?"

작가: 이은정, 정은영, 김규동, 박기범

작가: 이은정, 정은영, 김규동, 박기범

9월 초, 금빛초등학교 교장선생님과 작가들이 만나 학교의 협조를 구하고 5, 6학년 학생들 중에 '우리 동네는 달라요'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싶은 아이들의 신청을 받았다. 이렇게 모인 20명의 아이들과 4명의 작가들이 매주 수요일, 토요일에 금빛초등학교 과학실에서 우리 동네를 바꿀 '예술' 작업을 한다. 총 12회 강의를 아이들과 함께 태평4동 샘터길의 맨홀 두평을 스캔할 기법으로 종이에 본을 떠 색을 입히는 것과 구리판을 이용해 예쁜 모양의 모빌을 만들며 통심길 곳곳에 달 계획이다. 작가는 아이들에게 방법만 제시하고 옆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아이들이 주체가 되어 태평동 골목을 도화지 삼아 동네를 꾸미면서 '나'와 '내 집' 그리고 '우리 동네'를 다른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

기간 2006. 9. 27 - 10. 28

장소 금빛초등학교 과학실, 태평4동 통심길과 샘터길

참여작가 이은정 (소문장가), 정은영 (소문장가), 김규동, 박기범

참가자 수업을 신청한 금빛초등학교 학생들

5학년 김수현, 박현희, 정은희, 이한솔, 고서훈, 김영재, 권다인

6학년 이재진, 이다솔, 이은아, 연은비, 한다혜, 김민지, 유지영, 조지연, 이은경, 정혜진, 정현아

수업일정표 9. 27 1-2강 오리엔테이션 및 샘터길 산책

10. 11 3-4강 맨홀 뚜껑 도안 그리기

10. 14 5-6강 맨홀 뚜껑에 색칠하기

10. 18 7-8강 모빌제작 1

10. 25 9-10강 모빌제작 2

10. 28 11-12강 모빌 설치 및 종강

첫번째, 나는 누구이며 어디에 살아요

09.27(화) 오후 1시~4시 오리엔테이션

총 2일지, 원 도화지, 붉은 사인펜, 스케치북, 48연필

자기소개 작가들과 금빛초등학교 아이들이 처음 만나는 시간. 첫 시간이라 명찰에 자기 이름을 쓰고 간단하게 명찰을 꾸미고 나서 한명씩 앞에 나와 자기소개 하는 시간을 가졌다. 하지만 서로 어색해서 그런지 아이들은 “저는 0학년 0반 000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조차 무척이나 부끄러워한다. 아이들이 자기소개를 어려워하는 바람에 결국 친한 친구 두 명씩 짝을 지어 서로 소개했다.

“제 옆에 있는 은경아는요~ 동방신기를 좋아하구요..공부도 디게 잘해요~”

“어...나 공부 못하는대?”

“이제부터 우리는 예술가야!”

우리집 지도만들기 자기소개 후에는 칠판에 커다란 백지를 붙여놓고 금빛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자기 집 위치를 지도에 그려보았다. 이은정 선생님께서 앞으로 진행할 프로젝트를 설명하며 샘터길 댐홀 투경에 색을 칠할 것이라고 하자 아이들은 “와~ 재밌겠다~”며 한껏 들뜬다. “앞으로 여기있는 친구들이 예술가예요.”라는 선생님의 말에 아이들은 쑥스러워하면서도 으쓱해하는 눈치. 우리 동네 지도 만들기를 한 후에 아이들은 스케치북과 연필을 들고 태평4동의 최대 빈화가(가)라고 할 수 있는 샘터길로 댐홀투경 조사를 위해 나간다.

샘터길 산책 샘터길을 산책하며 아이들은 댐홀 투경의 갯수와 모양을 스케치북에 그리기도 종이를 직접 댐홀투경 위에 대고 연필로 칠해 탁본 기법으로 모양을 뜨기도 했다. 평소엔 무시코 지나쳤던 댐홀 투경의 모양과 크기가 다른 것을 보고 아이들은 “와, 글씨랑 모양이랑 다 다르네..”, “선생님, ‘오수’가 뭐예요?”(‘오수처리’라고 쓰여 있는 댐홀투경을 보고) 아이들은 “이건 내가 할 거야~”라며 무슨 보물찾기라고 하듯 댐홀 찾기에 여념이 없다. 하지만 아이들이 조사한 댐홀투경의 갯수는 모두 달랐다. 어떤 아이는 20개라고 하고 어떤 아이는 40개라고, 결국 30개로 합의하며 수업을 마쳤다.

09.28(수) 오후 1시~4시 오리엔테이션

09.28(수) 오후 1시~4시 오리엔테이션



두번째, 샴터길 맨홀뚜껑 디자인과 오리기

10.11(수) 2014~4시

준비물 스케치북, 4B연필, 색연필, 사인펜, 크레파스, 2절 두꺼운 도화지, 가위, 칼, 스키타헤이프

본 오리기
본 오리기

긴 추석연휴를 쉬고 작가들과 아이들이 다시 만난 두 번째 수업시간.

첫 수업에는 신성한 아이들의 거의 다 왔었지만 두 번째 수업부터는 중간고사와 아랍단(특별활동)에 가야하는 아이들 때문에 12명이 참여했다. 앗, 이번 수업의 청일정인 5학년 고낙훈은 과학실 캐비닛 속에서 나온다. 장난꾸러기 고낙훈을 포함한 13명이 맨홀뚜껑을 변신시키는 작업을 시작한다.

맨홀뚜껑 디자인 주제정하기 지난번에 조사한 맨홀뚜껑에 대한 자료를 토대로 아이들과 작가들은 맨홀뚜껑 디자인에 관한 브레인스토밍에 들어갔다. “우리 맨홀 뚜껑에 무엇을 그림지 주제를 정해보자~”

아이들은 꽃, 동물, 나무, 바다 속, 하늘, 과일, 특수문자, 음식, 곤충, 가전제품, 우주, 돈, 영화캐릭터, 초상화, 한국 전통문양, 심지어 어른들이 좋아하는 것이라며 화투의 문양을 그리자는 아이도 있었다. 의견이 분분해서 다수결로 정하기로 하고 원하는 모양에 손을 들라고 하자 아이들이 모두 화투를 그리자고 했다. 아이들은 뭐가 그리 재밌는지 계속 키득거린다. 결국 선생님들의 설득으로(??) 주제는 “바다 속”으로 결정하고 바다 속 생물들을 스케치북에 그리기로 했다.

스케치와 색칠하기 제, 산호, 조개, 대구, 명태, 갈매기, 바닷물, 새우, 명게, 해삼, 해파리, 소라, 복어, 다슬기, 멸치, 갈치, 홍합... 아이들은 바닷 속 생물들을 끝도 없이 재창조한다. 처음에는 어떻게 그려야할지 모르겠다며 서로 눈치만 보던 아이들이었지만 시간이 좀 지나자 “선생님~ 저는 맨홀 하나 가득 복어를 그렸어요. 근데 복어 입은 맨홀 밖으로 빠져나와도 되는 거죠?”, “선생님~임, 전 동글동글 말린 무지개 색 물뱀을 그렸어요.”, “전 인어공주의 꼬리에요~~~” 라며 기발한 상상력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다. 한 장 그리고 한 장 더, 한 장 더. 아이들은 서너 장의 스케치를 하고 색연필과 크레파스로 색칠을 한 후 두꺼운 도화지에 맨홀 크기로 확대해 본을 그린다. 아이들이 사용할 기법은 스텐실. 아이들은 처음해보는 스텐실 기법에 어려워하면서도 흥미로워했다.

스텐실 기법 정지남쌤이라고도 한다. 맨홀기법으로 발달하였으나, 반죽에도 이용된다. 보통은 두꺼운 종이에 부니를 그려 잘라 내어 이것을 종이나 플라스틱 위에 놓고, 잘라낸 부분에 그림물감이나 염료 등을 묻혀서 스며들게 한다. 대량에 복제에는 적합하지 않으나, 그림물감의 색을 마음대로 한 장의 행자에 다양한 효과를 지을 수 있다. 인쇄보다는 아주 초보적인 방법이지만, 브랜들들의 미술인재에서는 자갈도 이 방법을 종종 이용한다고.

본 오리기
본 오리기

본 오리기 두꺼운 도화지에 그린 본을 칼로 조각조각 오리다. 칼을 써야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선생님들과 아이들은 조를 이루어 선생님의 지도 아래 조심조심 작업을 한다. 본을 다 오린 아이들은 오린 조각들이 흩어지지 않게 다시 파슬처럼 본을 맞추어 오린 조각들은 흩어지지 않게 테이프로 붙인다.



세번째, 샤프터길 맨홀뚜껑에 옷 입히기

10.14 (토) 오전9시~오후3시

주최: 맨지탈이름 숲, 지난 시간에 준비한 본, 스프레이 물감



본 • 샤프터길 맨홀뚜껑에 옷 입히기

본 • 샤프터길 맨홀뚜껑에 옷 입히기

본 시간 동안에 샤프터길 아이들은 세 번으로 나누어 동생 스프레이 색칠한 아이들 지 놀이판을 커가만 두꺼운 도화지를 들고 있던 선생님과 함께 샤프터길로 나왔다. 차가 오는 것을 친구들에게 알려주는 자동차 전조등, 스프레이 물감을 뿌리는 자전거, 자전거를 도는 도화지, 스프레이를 뿌리고 나서 자동차 바퀴로부터 색깔을 안전하게 지우는 '지킴이'로 역할 분담을 했지만 그 중 한 골목길에 차가 왜 그리 많이 다니는지 생각해 한 대를로 되려도 내일 오후까지도 차가 다니는 바람에 아이들이 어떤 놀고 맨홀뚜껑을 칠 수 없었다. 스프레이를 뿌려다 말고 오후까지도 어떤 할아하고 다사 가서 하기를 못 했으나 반격했다.

본 시간 동안에 샤프터길 맨홀뚜껑에 옷 입히기

수업 셋째 날, 샤프터길에 나가 맨홀뚜껑을 꾸미는 날 지난 번에 본을 오리는 작업을 못 마친 아이들은 학교에 남아 계속 작업을 하고 본 작업이 끝난 아이들은 본을 들고 나가 학교 후문 안에 있는 맨홀뚜껑을 꾸몄다. 서로 학교 안에는 자신의 작품으로 꾸미겠다고 덤비는 아이들. 학교 안의 맨홀뚜껑을 다 꾸민 아이들은 선생님들께 안전교육과 역할 분담을 하고 함께 야심차게, 샤프터길로 나간다.

그래도 예술은 계속된다 아이들은 맨홀뚜껑이 변신해가는 모습에 신이 나는 모양이다. 먼저 맨홀뚜껑 위에 있는 흙과 먼지를 솔로 제거하고 그 위에 오린 두꺼운 도화지 본을 대고 원하는 색의 스프레이를 뿌린다. 처음 해보는 스프레이 물감 뿌리기. 아이들은 물감을 뿌리자 바로 맨홀 뚜껑의 색이 변하는 게 재미있는지 허공에 대고 물감을 뿌린다 선생님에게 혼나기도 하는 등, 서로 '스프레이 뿌리기'를 하고 싶어 했다. 원하는 색을 칠하기 위해 본을 여러 번 바꿔야하는 번거로움과 짐을 들고 여기저기 맨홀을 찾아 돌아다녀야 해서 아이들은 힘을 법도 한데(그것도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지치지도 않는지, 오늘은 그만 하고 정리하자는 선생님께 이렇게 말한다. "그럼 선생님은 먼저 들어가세요, 저희는 좀 더 하고 갈게요."

맨홀뚜껑의 변신은 무죄 적잔~! 아이들이 새로 옷을 입힌 맨홀뚜껑을 공개합니다!



네번째, 동심길 산책과 모빌 디자인

10.18 (수) 오후1시~4시

본 • 다산초등학교 3학년 1반

이번 시간부터는 샘터길 옆 동심길을 장식할 모빌을 만드는 작업을 시작한다.

스케치북에 원하는 모빌 밑그림을 그린 후 구리판 위에 그림을 옮겨 조심 조심 구리판을 오린다. 오린 구리판을 망치나 못으로 두드려 장식하고 벽에 데달 수 있게 구멍을 뚫어 완성. 아이들이 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걱정했으나 걱정과 달리 아이들이 가장 재미있었던 작업이었다.

애니메이션 감상 “모빌? 선생님, 어떤 모양으로 해야 해요?”

모빌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프린스&프린세스’라는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모빌의 모양이 될 아이디어를 찾아보았다.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아이들은 “와 저기 나오는 기린 예쁘다~”며 빠져들었다. 애니메이션을 다 보고 난 아이들은 아이디어 스케치를 하며 각자 의견을 발표해 본다.(주제 일치, 실현 가능성 여부) 처음에 방향을 잡지 못하던 아이들은 작가들이 최소한의 방향만 제시해주면 그 다음부터는 붓물 터진 듯 아이디어를 쏟아낸다.

모빌 움직이는 조각이나 공예품. 여러 가지 모양의 쇠조각이나 나무조각 따위를 가는자란 철사, 실 따위로 매달아 곁을 이루게 한 것으로, 공기의 완동에도 영향을 유지하면서 움직인다. 1932년에 미국의 조카가 칼라미 작품이 오르게 모빌이라는 명칭으로 불리면서 사용되었다. 우리말로로는 “흔들레미”.

동심길 산책 애니메이션을 보고 의견을 나눈 후 선생님과 아이들은 모빌 달 곳을 정하기 위해 다 같이 동심길 산책을 나섰다. 산책 중에는 꼭 슈피에 들어가 아이스크림을 사오는 녀석이 한 명 있게 마련. 그래도 혼자 먹기 미안했는지 자기 볼 외에 아이스크림을 하나 더 사와서 친구들에게 나눠 먹으란다. 다들 아이스크림 한 입씩 먹으려고 야옹 야옹 하면서도 선생님 눈치를 보며 “선생님, 저기 백동길 위에 달았으면 좋겠어요~!”라며 수업에 집중하는 척하는 아이들이 마냥 귀엽다.

스케치하기 동심길을 다니며 모빌 달 곳을 정한 아이들은 스케치북에 번지수를 적어놓고 다시 과학실로 돌아와 원하는 그림을 함께 고르고 본격적인 스케치를 시작했다.

본 • 동심길 산책하며 모빌 달 곳을 정한 아이들

본 • 수업 디자인 회의

본 • 다산초등학교 3학년 1반



여섯번째, 동심길에 모빌을 달자

10.28(수) 오전9시~오후3시

모빌 설치 허락받기 선생님들과 함께 지난 시간 산책하면서 선택했던 곳에 완성된 모빌을 설치하러 갔다. 일단 모빌을 달고 싶은 집의 초인종을 눌러 집 주인의 허락을 받는 것부터가 아이들에게 주어질 과제였다.

아이들도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어려워하니 급세 재미를 붙였다.

“저희는요, 금빛초등학교에서 예술창작 수업을 하고 있는 데요, 우리가 만든 모빌을 달아 드리려고요, 공짜예요, 이 중에서 고르시면 되는데요, 양 모양이 제가 한 거예요.”

일단 허락을 받으면 기쁘게 선생님을 부른다.

“와~선생님 여기 우리가(?) 허락 받았어요!”

“선생님 저 집은요, 자기들은 세 들어 사는 거라서, 주인이 아니어서 허락을 못해요.”

“저 집은 지금 사위중이라고 이따가 오라고 했어요, 이따가 선생님이 우리랑 같이 가주세요.”

“저 집엔 아무도 없는데 개만 있어요, 개가 자꾸 누구? 누구? 라고 짖어요, 하하하하”

모빌달기, 모빌은 예뻐다 가장 어렵고 험난했던 작업이다. 아이들이 모빌을 달 집에 허락을 받으면 선생님들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허락받은 집 문 위에 드릴로 구멍을 뚫고 못을 박아 모빌을 설치했다. 두 분의 남자 선생님들께서 시멘트 먼지를 마시며 작업하는 것을 보고 두 학생은 사다리 밑에 앉아 ‘스승의 은혜’를 부르는 센스를 발휘하기도 했다. 선생님들이 고생 끝에 모빌을 설치하고 나면 아이들은 밑에서 탄성을 지른다.

“정말 예쁘다!”, “우리 집 앞에도 달고 싶다~”

아이들 말대로 완성된 모빌은 **정.말.예.뻐.다.**

본 · 디자인 · 사진 · 편집 · 배정



동심길에 설치한 아이들이 만든 모빌





작가 후기

보통 어린이 미술교육

교육예술인가, 예술교육인가.

우리는 이 두 단어를 자연스럽게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술가를 양성하기 위한, 혹은 예술적 소양을 길러주기 위한 것을 예술교육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창의력을 겸비한 다양한 문화예술의 생산자가 될 수 있는 기본적인 소양을 갖춘 어른으로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과연 예술교육일까요?

프랑스 어린이들은 주말이면 가까운 호숫가, 여기저기 산재해 있는 옛 고성들, 대형 루브르 박물관에서부터 오르세 미술관, 현대 미술관, 그리고 크고 작은 전시장들로 나들이를 갑니다. 전시장의 작은 청원들, 시내 곳곳의 예술품들, 베르사이유의 궁전 청원이 바로 그들의 주말 놀이터입니다. 이곳에서 아이들은 그들 조상들의 문화 예술품들을 몸으로 느끼고 함께 숨쉬며 그 사이를 마음껏 누비고 다닙니다. 이들에게 특별한 예술교육이 필요치 않습니다. 미래에 필수 불가결한 문화적 독해력을 갖춘 시민으로 성장해 나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이 바로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것이지요. 이런 그들의 생활환경 자체가 문화예술교육이며 자연스러운 교육예술의 물다리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국 도시의 아이들은 어떠한가요. 놀이가는 고층 빌딩 숲 사이로 보이는 것은 고작 아파트 단지 내의 놀이터와 어린 목욕들, 조금 큰 단지로 들어가

보면 약간은 나은듯한 인공 공원들이 그들과 함께 호흡하고 있습니다. 태평동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로 자른 듯한 꼭두각시를 연상시키는 그곳에서 생활하는 어린이들... 그래도 아파트 단지 내의 아이들 보다는 조금 더 삶을 느낄 수 있는 공간 속의 아이들이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다행히도 요즘은 10년 전과는 달리 여러 교육단체나 국립미술관 등에서 아이들을 위해 열린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개발하고 시도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저를 포함한 4명의 작가들은 지난 2개월간 성남문화재단의 '태평동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어 금빛초등학교의 사당스런 어린이들과의 소중한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는 어떻게 하면 그림을 잘 그릴 수 있나, 어떻게 하면 좋은 작품을 만들어 낼 수 있나, 식별해 낼 수 있나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생활 속에서 발견 할 수 있는 예술 아닌 예술 작품들, 그것들을 발견 할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건 여러 작품들에 잘 속달된 직선적인 시각이 아닌 개개인의 마음이라는 것. 그런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는 데 도움이 되고 싶을 뿐입니다.

정은영 작가 (스튜디오티)

공간 + 예술

생활 공간 속에서 만나는 예술

- 01. 한평생의 집으로 만들기
- 02. 두정4동 벽화마을
- 03. 삼가아트리움



한평십터 '쪽마루' 만들기

가파른 언덕과 좁은 골목길, 특별한 휴게공간이 없는 태평4동 곳곳에는 주민들이 돗자리를 집 앞에 깔고 삼삼오오 모여 앉아 이야기 나누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 심지어 꼬마 아이들도 골목길에 돗자리를 깔고 앉아 소꿉놀이를 하곤 했다. 기존에 평상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긴 했지만 많이 낙후되어 있고 이마저도 가파른 골목의 특성상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곳이 많았다. 그래서 주민들의 소통 공간에 작가가 결합하여 **이야기와 쉼터가 있는 골목길을 만들기 위한 '쪽마루'** 만들기 프로젝트는 시작되었다.

“도시공간은 인간 삶의 수많은 사이들이 채워진 다양한 공간이다. 도시와 도시민이 분리되고, 나와 이웃이 분리되지 않는 곳으로 분리되면서도 중첩된 공간이어야 한다. ‘바을 만들기’ 사업목표에서도 밝혔듯이 기능주의적 도시계획의 모순을 극복하고 주민 스스로 일상생활을 향유할 수 있어야만 한다.” 김태현 작가

신청 기간 2006. 9. 18~10월 말까지 수시로 접수함

제작 기간 2006. 10. 9~11월 중순까지

장소 태평4동 영장길, 달맞이길, 샘터길, 동성길 골목

설치 개수 56개

- 제작 방식**
1. 주민들의 전화 신청
 2. 작가가 직접 찾아가 설치를 원하는 장소에 있는 쪽마루의 크기 상단
 3. 치수 재기
 4. 양바묵으로 제작 후 끈재로 바깥

참여 작가 김태현, 김가수

도화주신 분들 정병인, 이희서, 박진영, 장삼선

● 도시와 도시민이 분리되고, 나와 이웃이 분리되지 않는 곳으로 분리되면서도 중첩된 공간이어야 한다.

● 도시와 도시민이 분리되고, 나와 이웃이 분리되지 않는 곳으로 분리되면서도 중첩된 공간이어야 한다.



● 도시와 도시민이 분리되고, 나와 이웃이 분리되지 않는 곳으로 분리되면서도 중첩된 공간이어야 한다.

● 도시와 도시민이 분리되고, 나와 이웃이 분리되지 않는 곳으로 분리되면서도 중첩된 공간이어야 한다.

01 폭마루가 설치될 곳의 차이를 체크하는 김태현, 장승우 작가

02 기존 폭마루 사진

03 이렇듯 작가는 물과 반박, 서해 반박, 금빛 조물학교와 함께 침묵의 벽을 그려다가 폭마루도 만들다가 또 벽에도 그린다.

04 골목 구석 구석 설치된 폭마루에서 아이들은 장난치고 어른스런척 작은 노인장이 되기도 한다.

05 평생 폭마루는 크기가 적어 얼마동안만 한 줄로 세 방이 있었었는데 새로운 폭마루가 설치된 후에는 두 줄로 두대 여섯 방이 들어올거 아니겠나.

06 • 2015년 7월 10일 촬영

폭마루 만들기 TIP

주민들의 요구 수렴 주민들과의 인터뷰나 지속적인 접촉을 통해 대상지 일대에 설치될 시설물에 대한 주민의 요구를 프로젝트에 반영한다. 특히 주차문제, 취객들이나 아이들의 소음 등이 건이설터 조성의 어려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주민들과 대화를 통해 이와 같은 바람이 적은 대상지를 선별하거나 문제가 발견된 공간일지라도 주민의 요구가 있다면 해당공간에 적합한 시설물 구조를 제안한다.

기존시설물 재정보 기존의 남은 시설물(남은 평상, 칸이의자)을 조사한 후에 수리하거나 공간에 적합한 형태로 다시 제작하고, 지역에 서 활용하는 주민봉사대와 협력하는 방법을 통해 프로젝트를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형태로 발전시킨다.

협소한 공간의 효율적 활용 골목길의 좁은 여건을 감안하여 설치물이 꼭 필요한 장소만을 엄선하고, 설치된 구조물이 향후에 공간 활용에 지장을 주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주민 환경과의 조화 시설물들은 주민들이 실제 사용을 목적으로 제작되어야하는 만큼 공간효율적인 디자인 채택해야한다. 따라서 공간 밀도를 높이는 입체적인 구조를 최소화하고 주변에 있는 화분의 효율적 배치를 위한 디자인을 제안한다.

07 • 2015년 7월 10일 촬영

폭마루 할머니들과 작가와의 잠깐 대화

"할머니 여기서 무슨 말씀 나누고 계세요?"

"뭐 쓸데없는 얘기나 하지 허허허허"

"아기씨는 몇 살인가? 결혼했어?"

"100살이구요. 아직 결혼 못 했어요"

"빨리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해야지."

"그런데 좋은 사람이 안보이네요."

"남자는 착하고 성실하면 돼 다른 거 하나도 없이"

"아니에 남자네 부모도 좋아야하"

"인물은 형하지만 앉으면 돼 뭐 인물이 뭘 먹여 주니?"

네 분의 할머니께서 동시에 제각각 좋은 남자의 조건을 말씀하십니다.

"여기 폭마루에는 자주 나오세요?"

"할일 없으니까 심심하면 나오는 거지 근데 이제 날씨가 추워져서 못 나오겠어. 평상 좋은 놈으로 바꾸니까 날씨가 추워지네. 허허"



태평동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들.

비슷하게 생긴 갈색 건물들과 하늘을 오가는 전깃줄, 좁은 골목길을 누비는 배달 오토바이와 트럭... 변변한 놀이터 하나 없는 태평동에는 예술과 가까워질 수 있는 공간이란 없다. 더욱이 이제는 흔하다고 생각되는 미술관이지만 성남 구시가지 사람들에게겐 아직도 미술관은 멀게만 느껴진다. 그리하여 성남에서 활동하고 있는 성남 민예총 작가들이 3~4년 전부터 구상해오던 것이 바로 벽화미술관 프로젝트이다. 이 프로젝트는 한국토지공사와 성남문화재단의 후원으로 태평4동에서 '태평동 판타지'란 이름의 벽화미술관으로 태어났다. 벽화미술관은 태평동 금빛초등학교와 골목 곳곳에 벽화를 그려주는 벽화팀과 주민들이 원하는 그림들을 신청 받아 작가들이 신청 받은 그림을 재현해서 골목에 전시하는 미술관팀으로 구성되었다.

기간 2006. 9~2006. 11. 10

주관 (사)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성남지부

후원 한국토지공사, 성남문화재단

벽화 | 미술관 신청접수 및 공교 2006. 9. 25 ~ 10. 14

공교 -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동장협의회 등 유관기관과의 워크숍 및 사업설명회
현수막, 전광판, 전단지 등을 통한 홍보
작가들이 작품을 맡아 주민들을 만나면서 직접 설명

제작 10. 14~21 금빛초등학교 벽화작업

10. 21~11월 초 우리동네 미술관 작업

작품설치 11. 9~11. 10 (초대 어린이들과 미술관 투어 및 미술전시)

참여작가 금빛초등학교 담장 : 이화서, 박찬영, 정상신

금빛초등학교 내부 벽 : 김성수, 차 자원봉사 20여명 중앙대, 경향대, 경희대 등

미술관팀 : 김성수, 송정, 김태현, 이문준, 권해진, 김신희, 이병철

벽화 미술관 개관식 모습

벽화 미술관 개관식 모습



이 학교 담벽 금빛초등학교의 담벽, 교정사생들의 연달아임을 통해 작품을 선정하였다. 초등학교 담장은 학생들의 휴식 공간이 아니므로 원시 주민들도 함께 보는 공간이니 만큼 여의 사색을 위한 그림을 그려달라는 교정사생들의 주장에 따라 벽화작업을 전문으로 해온 이화서, 박찬영, 정상신 작가가 입찰을 통해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그려 넣었다.

교정사생 학교 내부 벽은 학교 내부에는 여의한 공간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공간에 그 중 한 공간 사생의 작품으로, 다른 한 공간에 여의한 공간으로 그려 넣었고 또 다른 공간에는 교정사생의 연달아임을 그 날에 활용하고 있는 아이들을 그려냈다. 학교 전의 벽화는 경각시켜 미술대회의 학생들 20여 명이 자원봉사로 참여하여 오고가는 학교 어린이들과 함께 그림을 그렸다.



우리동네 미술관 작업표

[김홍도] 풍속화 연작 | 연재진 작가

[장욱진] 부엌과 방 | 김연희 작가

[피카소] 노란 열매 | 송 철 작가

[모네] 수련 | 송 철 작가

[경채 형선] 인형극장 | 허문순 작가

[칸딘스키] 검은 안 속의 | 김태환 작가

[박수근] 나무와 두 어린 | 김연희 작가

[이연순] 물고기 | 연재진 작가

[신윤복, 김홍도] 풍속화 | 허문순 작가

[고경] 해변의 거수들 | 김태환 작가

[르느와르] 테라스에서 | 이연희 작가

[고흐] 테라스가 | 이연희 작가

[이철수] 피라미 | 김상수 작가

[남궁산] 열매 | 김상수 작가

[류연복] 이차 | 김상수 작가

[오윤] 복숭 | 김상수 작가



우리동네 미술관 프로젝트

우리동네 미술관 만들기 프로젝트는 태평동 프로젝트 중 가장 홍보를 많이 한 사업이다. 처음에는 홍보지를 A4지에 인쇄해 태평동 골목 골목에 붙였는데 신청이 너무 적어 동사무소의 전광판 광고와 현수막 광고, 그리고 작가들이 직접 동네 주민들을 만나 홍보하는 과정을 통해 태평4동 골목길의 총 16곳, 27점의 작품을 신청 받았다.

신청된 작품 목록은 김홍도, 신윤복의 풍속화, 이철수, 류연복, 오윤, 남궁산의 판화작품들과 장욱진, 피카소, 모네, 고흐, 고경, 칸딘스키, 박수근, 르느와르 등의 작품들로 동서양의 주요 화가들의 작품들과 현대화가들의 작품까지 다양한 작품들이 접수되었다. 신청 받은 명화들을 성남 민예총 활동 작가들이 나름의 방식과 스타일로 작업실에서 작업한 후 방수가 되게 액자에 담아 태평동 골목 벽에 부착했다. 그리고 노인정과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지저분해진 담장을 깨끗하게 칠한 후 벽에 직접 벽화를 그려 넣었다.

동네아이들과의 미술관 투어

그림의 설치가 마무리된 11월 10일에는 동네 아이들과 함께하는 벽화미술관 투어가 있었다. 투어를 위해 모인 금빛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은 처음 보는 그림들 앞에서 호기심을 감추지 못했다. 르느와르의 그림 <테라스에서> 앞에서 아이들은 테라스는 나라 이름이라고 우기고 경채 형선의 그림 앞에서는 경선이 여자 아니냐고 묻는 아이들.

“우리집 앞에도 그려주시면 안돼요?”

“와~ 이 점은 앞에 예쁜 그림 있어서 집주인이 좋아하겠대~”

한 아이는 모네의 <수련>이란 그림 앞에서는 “이거 미역 맛조?”라고 당당하게 물어본다.

투어를 진행한 김상수 작가와 아이들의 대화

김상수 작가 “오늘 본 유명한 화가들에 대한 설명이나 다른 작품이 보고 싶으면 어디에 물어보면 될까요?”

아이들 “현재의 자신당 말하는 쪽으로요” “네이버~요”

김상수 작가 “딩동딩동~~ 맛있어요~오르는건 네이버에 물어보세요~”

작가 후기

아직 끝나지 않은 벽화미술관

태평4동은 성남 수정구에서 가장 높은 곳이다.

높다는 것, 그것은 저 외국의 종량 좋은 높은 자리에 위치한 집이 더 비싼 것과는 반대로 쫓기고 쫓겨 자꾸만 높은 곳으로 가야만 하는 우리나라의 주거문화의 현실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 다락방 같은 집들이 다다다다 붙어 있는 성남의 대부분의 동네들이 그렇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착박하고 공간의 조밀도가 높은 곳이 태평4동이다.

흔히 후진동네에서 살던 이들에게 문화예술이 개입해서 조금이라도 기쁨을 주고 삶의 공간에 미술작품이 함께 한다는 그 추억하나만이라도 간직하게 해 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우리는 만족하고 기뻐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작가들 속에서 논란이 되다

그러나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 곡절이 없다면 그건 또 재미없는 일일 것이다. 프로젝트 진행을 위한 작가 워크숍 때의 일이다. 주민들이 좋아하는 그림, 즉 일반인에게 잘 알려진 그림이란 이른바 '명화'들이다. 사업기획안 설명과정에서 작가들로부터 문제제기가 있었다. 왜 작가들이 남의 작품을 배껴야 하는가? 그것도 왜 명화인가? 명화에 대한 정의는 누가 내리는가? 작품에 작가가 개입해서 변형을 하면 또 어떨겠는가? 토론은 진지했고 치열했다. 하지만 낙후한 태평4동이라는 이 동네에 작품들을 그려 넣거나 액자를 만들어 붙여준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아이러니이고 역설이었다.

또한 이 프로젝트의 취지는 철저하게 작가들의 눈높이를 대중에게 맞추자는 것이다. 작가의 개입은 최소화하고 주민들이 좋아하는 그림을 주민들로부터 신청 받아 태평4동이라는 미술관에 설치한다는 것에 더욱 의미를 두고자 했다. 특히 미술교육적인 활용의 면에서 더욱 그러했다. 서구사회의 미술교육이

● 2014년 10월 10일

● 2014년 10월 10일

미술관에서 주로 이루어지며 미술관은 유명한 화가들의 그림을 모사해서 미술관에 버젓이 전시하며 교육에 활용하고 있다. 작가가 자기의 그림을 창작하지 않고 남의 그림을 그리는 것이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인지를 서로가 잘 알고 있는 우리들이었지만 철저하게 자신을 배제하고 작가적 개입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재료의 선택에 있어서만큼은 작가들의 몫으로 남겨 두었다.

아쉬웠던 점

현재 진행중인 작업들이 대부분인 벽화미술관 프로젝트는 작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가능했다. 그러나 촉박한 일정과 경험의 미숙은 여러 가지 과정과 교훈도 함께 드러내고 있다.

●사업 완료후 워크숍과 모니터링을 통한 사업 평가를 반드시 진행해야 한다. 다른 지역에서 시도된 적이 없는 새로운 형식의 미술관 사업의 효과와 그 성과는 향후 몇 년이 지난 후에 나타날 수도 있다. 지속적인 연계사업이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프로그램 기획과 진행과정에서 충분한 기간을 두고 진행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작가들의 작품제작일수를 10일 정도로 제한 한 것은 작품의 질과 작가들의 일정조정을 매우 어렵게 하는 측면이 있다. 작품 선정 과정이후 충분한 제작기간을 두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미술관 지도제작과 이를 통한 미술교육 연계사업을 꾸준히 진행하기 위한 지역사회와의 지속적인 연계가 필요하다.

●설치 혹은 그려진 작품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계획이 필요하다.

"장터는 '살'이 담긴 생생함과 움직임의 동선과 활동이 담긴 장소로, 여기서 벌어지는 예술활동도 결론을 위한 활동이 아닌, 함께 만들어나가고, 고민하며, 발견해 가는 과정에 중요성을 두는 프로젝트입니다.

이 연결고리를 '클립' (Clip=매개)의 역할로 대비하여 주민과 공감하고 만들어 가는 '행위' (예술 활동과 예술 활동이 아닌 것까지)와 그것을 통해 생산되고 재발견하는 것을 때로는 재구성된 오브제(새로 인식된 가치의 오브제)로, 때로는 한 공간에서 만나는 순간과 과정으로 발현시키고자 합니다.

곧 상가 주민들이 생산자이자 구성원이 되는 아트클럽은 주민과 함께 기획하고 참여하며 소통과 공유, 공동의 순간을 만들어 가는 활동입니다. 아트클럽으로 태평 4동은 새롭게 시장과 개인의 감성과 미감을 되찾고, 서로 알아가며, 이해하고, 함께 동락(同樂)하며, 시장 내의 공동의 추억과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기간이자 공간이 될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주민들의 오래된 감성도 되살려보며(경험의 재발견), 이웃 간의 다른 모습을 발견하기도 할 것입니다. 또한 함께 즐기고 서로를 알아가는 계기가 되어 새로운 대화의 장을 만들 수 있는 프로젝트가 되고자 합니다."

아트클럽 큐레이터 유다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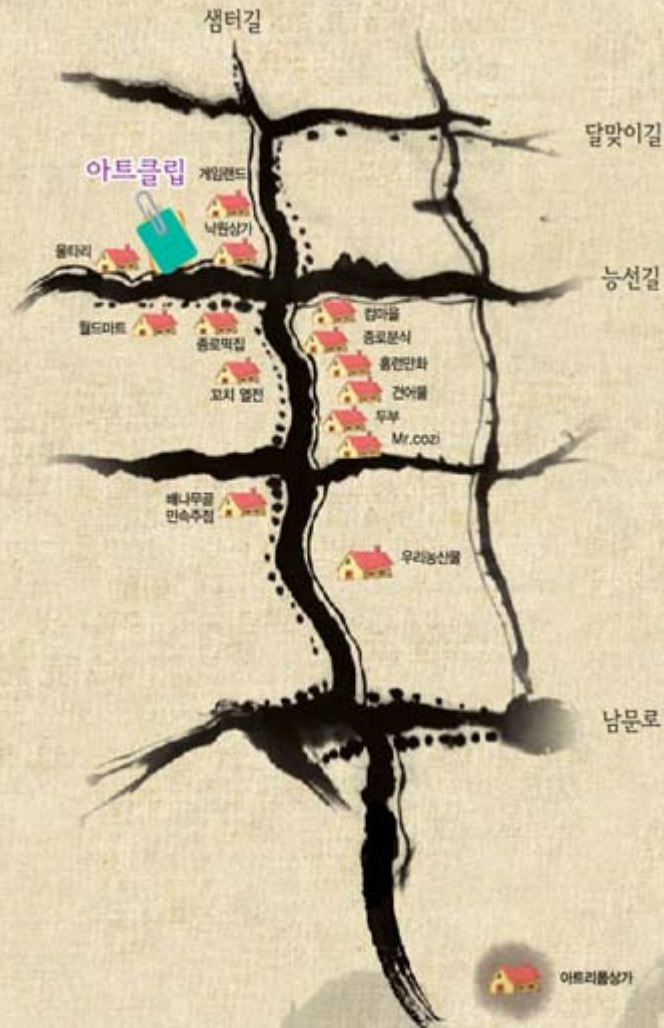
기간 2006. 9. 9 ~ 10. 1

대상 태평4동 상터길을 중심으로 아트리폼을 원하는 상점

참여상점 홈인한화, 미스터 고치, 캄아울, 고치열전, 종로매점, 율타리, 종로분식, 우리농산물, 할아귀네 노점, 율도마뱀, 배나무골 민속주점, 낙원상가, 개입랜드, 건어물, 비영하노점, 죽석구이집, 여수사당, 스탄숯불매점, 두부집

참여작가 유다희, 김주연, 김지영, 김지은, 유다현, 임유진, 천유리, 정영은, 최승이, 한승연, 임용현, 송수영, 김가을, 황병숙, 박효진

태평4동 상터길 아트리폼 프로젝트





© 2006 Pearson Education, Inc.

[illegible]

2. **기회** 앞에 7번째 있던 주지공자 103만 이공과 천공간에 계사(계)를 만들었다. 집안을 이루는(가)에서는 아드(공)도요일수인 공사(계)한 463만 명(가)주는 일 형식(가)들을 위한 이사로 앞다(가)고(가) 12만 명(가)

이 결과에 힘입어 박정희 대통령은 1970년 6월 28일 내각회의를 열어 “국립중앙도서관을 국립중앙박물관으로 개칭한다”고 결정했다.

이 글에서 논 할 것 같은 의미론적 차이에 대해 조금 더 보자. 순서 언어에서 추상도 서로 같아도 구체화 추상도 불일치함으로써 의미론적 차이를 드러낼 수 있다. '열린관'과 '개방사상'을 같은 '열린개'라는 표현에 담았다는 것은 표현의 다른 경향을 세심하게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차이를 보지 못한 것은 아마도 이 둘을 같은 것으로 보는 의도였을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보여 주는 것처럼, 이 둘은 전혀 다른 차이를 나타내며, 이 둘을 같은 것으로 보지 않는 것이 옳다.





우리한우촌
 오늘 한우소들어와요!
 한우맛은 아시죠? ㅎㅎ
 2006년 10월 20일



- 01 견어물 대신자를 이용해 거리를 다양한 모양으로 바꾸기 (해운대역)
 02 개입물도 거리를 더 재미있고 함께 할 수 있도록 개입물도 많이 넣어줘야 한다
 03 축적구입을 통한 교육 및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 축적구입을 여러차례 실시 직접 참여를 통한 교육 효과를 높일 수 있다
 04 축적구입을 통한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 축적구입을 여러차례 실시 직접 참여를 통한 교육 효과를 높일 수 있다
 05 축적구입을 통한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 축적구입을 여러차례 실시 직접 참여를 통한 교육 효과를 높일 수 있다
 06 축적구입을 통한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 축적구입을 여러차례 실시 직접 참여를 통한 교육 효과를 높일 수 있다
 07 축적구입을 통한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 축적구입을 여러차례 실시 직접 참여를 통한 교육 효과를 높일 수 있다

01 견어물 대신자를 이용해 거리를 다양한 모양으로 바꾸기 (해운대역)

02 개입물도 거리를 더 재미있고 함께 할 수 있도록 개입물도 많이 넣어줘야 한다



작가 후기

처음 이 프로젝트를 하기로 한 후 태평동 답사를 왔습니다.

이리저리 답사를 마치고 내려가던 길에 마을입구에 계시는 노점상 할머니를 우연히 뵈게되었습니다. 다른 작가들이 상점을 리폼한다고 이리저리 다니며 마을들이 들쭉거리는데 유난히 그 속에서 그분은 제외되고 소외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저는 그 할머니와 같이 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태평동에서 노점을 하신지 30년도 훨씬 넘었다는 할머니에게 매일 말을 걸고 막걸리를 같이 먹으면서 처음에는 멀리하시던 할머니도 서서히 말을 걸면서 마음을 여셨습니다. 할머니는 자녀가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했지만 아들 모두를 먼저 저 세상으로 보내셔서 늘~마음이 허전해 보이셨어요. 그래서 그분께 조금이라도 그런 마음을 채워 드릴 수 있다면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마음의 리폼인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그분께 다른 상가들처럼 공간을 주고 싶어서 자봉처럼 파라솔을 드렸고 땅을 의미하는 파란색 천막을 깔아드렸습니다. 그리고 10년간, 쓰신 지팡이를 바꿔드렸습니다. 저는 이번 작업을 통해서 제가 오히려 많은 것을 가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할머니의 웃음을 보았고, 또한 할머니와 다른 이웃들과의 대화를 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되었다는 것이 참으로 좋았습니다. 그곳에 손바닥 가게 할머니가 계시면 그 마을에 할머니들의 놀이터가 되는 것 같고 안 계시는 날은 웬지 그 마을이 쓸쓸해 보이더라고요.

할머니는 저를 새로운 손자를 얻은 것 같다고 좋아하셨지만, 지도 친할머니처럼 느낄 수 있었던 것이 제가 얻은 가장 큰 보석인 것 같습니다.

송부영 작가(내셔널 지오그래픽)



4 상가아트리폼에 참여한 상가 주민들의 편지

아트클럽의 등장은 상가 사람들에게 작은 과원이었습니다. 과연 저 재단들이 사실인지... 하지만 빠른 시간 안에 친해졌습니다. 아이들은 토요일을 기다리고 작은 예술의 마당이 된 듯 상가의 활력소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가벼운 인사도 나눌 수 있는 절교 예쁜 예술가들의 모임인 아트클럽 사랑합니다. (너무 아부인가요? ㅎㅎ) 박사, 화이팅! **여수시당**

안녕하세요. 저희는 태평4동 코치열전입니다. 처음에 아트클럽이라는 상호를 보고 뭘 하는 곳일까? 많이 궁금했습니다. 간편한 걸어놓고 사람들이 보이지 않고 동네사람들끼리 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 거리와 가게들이 바뀌어 가고 있더군요. 동네 아이들도 산이 나서 다니고 가게 분위기도 달라졌습니다. 아이들과 주민들이 같이 참여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 활기차 보여서 인상 깊었구요. 저희도 주말이면 기다려줬는데 아이들은 얼마나 많이 기다리겠어요. 26일날 간다고 들었습니다. 간다고 하나까 좀 서운하네요. 좀 더 계셨으면 좋겠는데... 저희 가게도 멋지게 꾸며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코치열전**



가을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불철주야 노고에 감사드리며, 동네 미화와 더불어 정서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아울러 우리지역 발전과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해나무꽃 인숙주점**



태평4동의 환경을 조금 더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시작한 아트클럽 작가분들에게 고마움을 가지면서... 처음에 시작은 힘들어보였지만 이제 모든 작업을 마무리 해놓은 것을 보니 저희 가게에 많은 보탬이 될 것 같습니다. 한층 더 산뜻해진 이미지를 보여준다고 사람들이 많음을 하실 때는 저희 기본도 더 좋아지는 것 같고 모든 것이 잘 될 것 같습니다.

어려모로 신경 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로 밋잇칸

처음에는 한 일 두 일 떨어지다 새로운 소식 전해지듯 우수수 장독대위로 낙엽이 떨어듯 그렇게 가을이 막아가네요. 아트회원님들께서 저희가게에 (생선과 오징어 등 그림으로)

문 • 12월 14일 화요일

간편을 새롭게 단장해주셔서 하루가 보람차고 새롭습니다. 생활에 활력을 주셔서 감사한 마음 전합니다. 수고해주신 아트회원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죽석구이집**

배움의 길 닦으시는데도 주민들에게 상쾌한 느낌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골목길 들어서니 그림이 산뜻하게 그려져 있는 모습 보면서 흐뭇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일 많이 하시고 부강한 발전하시길 기원합니다. **우진 밋두루**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온 아트클럽은 올 10월을 풍요롭게 만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추상적인 이미지를 통해 현실과 접촉시켜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종로분식**



우리동네 곳곳에 그림들을 보니 동네가 살아있는 느낌이 듭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감성을 자극해주세요. 아이들에게 많은 그림들을 접해서 행복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계림힐드**

아트클럽? 처음엔 모두 의아했지요. 처음 의문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항상 웃는 언니들 덕에 동네 분위기까지 한층 밝아졌습니다. 주말이면 줄을 서서 기다리는 아이들도 생기고 바닥에 예쁜 그림들도 하나 둘 생겨나고 보는 즐거움이 있었는데 좀 있을 다른 곳으로 간다 아쉽네요. 태평4동 뿐만 아니라 모든 마을을 아름답게 꾸며주는 아트클럽이 되길... 모두들 건강하세요. **월드라프**



<감마음>을 세련되고 우아하게 해주시신 아트클럽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처음 우리 동네를 오셔서 상가와 거리를 아름답게 해 주신다는 말에 시큰둥하게 생각했는데 막상 이렇게 예쁘게 해 놓을 걸 보니 무척이나 마음에 들고 행복함을 느낍니다. 우리 동네 사람들이 경제로 인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아름다운 거리와 예쁜 상가 때문에 마음에 힘을 얻고 행복한 시간과 건강한 삶으로 힘차게 살아가는 우리 동네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집니다. **합마음**

생활+예술

자나가는 길에 들렀어요

- 01. 화단 시상식과
손바닥 정원 만들기
- 02. 칠각 물집이하는 사진관
- 03. 골목길 영화제



화단 시상식과 손바닥 정원 만들기

태평4동 골목에는 집집마다 작은 화단을 가꾸는 집들이 많다. 농소화가 탐스럽게 핀 집, 감나무가 있는 집, 포도넙살이 올라가는 가게 등... 그 형태도 가지가지여서 스티로폼 박스에서 시작해서 대문 앞에 시멘트로 화단을 만든 집, 옥상 전채를 정원으로 꾸민 집 등등 작은 전시회를 보는 것처럼 아기자기하다. 화단시상식은 태평4동 주민들이 개인적으로 가꾸고 있는 화단 중 잘 가꾸진 화단을 심사하여 시상함으로써 주민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주민들이 향유하는 생활 문화를 발전시켜 태평4동의 정체성을 만들고자 하는 프로젝트이다.

아름다운 화단이 가득한 동네 태평4동!

태평4동의 아름다운 화단 옛보기 태평동의 화단은 살 속에서 필요에 의해 스스로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예술 그 자체였다. 화단은 너무 세련되거나 수준급이지 않지만 늘 우리 곁에 자생적으로 자리하는 것들이었다. 역시 예술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소소한 감성, 소박한 취미 등에서 발단한다. 시시한 것도 아름답게 보여주고 소소한 것도 소중한 것도 평범한 것을 비범하게 바꿔 주는 것에서부터 주민들의 대단함, 위대함이 보이기 시작했다. 친근한 화단의 모습에서 삭막한 사회의 세련됨에서 오던 갈증이 해소되는 기분이 들었다. 과장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소소한 일상이 얼마나 멋진가를 재단과 인정해주고 격려해주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서로의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의미 있는지 서로에게 가르쳐주는 일이란 생각이 들었다.

민지혜 작가

손바닥정원 만들기 교실 2006. 10. 23 - 24

장소 움직임은 사진관

강사 김혜숙 (신구대 교수)

화단시상식 홍보 2006. 9월 말 - 10월 초

화단 시상식 2006. 11. 17 태평4동 통사무소

대상 태평4동 일대 화단이 예쁜 집 / 화단 가꾸기에 관심있는 주민

참여작가 민지혜, 황현선, 김소정, 황세준

협력기관 성남시농업기술센터, 좋은마을운동협의회, 신구대학교, 식물응용과

좋은마을운동협의회

20년 넘게 이땅에서 농작물 재배에 몰입해오던 박희규씨가, 꽃작을 원소 등 태평4동을 전성시해서 가장 아름다운 동네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정현주 대표님과 화단으로 있는 단에서, 정현주 대표님을 통해 태평4동의 일대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 좋은마을운동협의회 소속 농민들까지 함께 동참을 가꾸고 계신다.



손바닥 정원 만들기 교실

01 • 디쉬 가든 만들기 교실

10월 23일, 24일 아들간 (매일 11시, 1시, 2시30분) 6회에 걸쳐 움직이는 사진관에서는 작은 접시위에 화단을 만드는 일명 '손바닥 정원 만들기' 수업이 진행되었다.

매회 5명씩 소수정예(10반으로 총 27명의 태평4동 주민들이 신구대학교 식물응용산업과 김혜숙 교수와 함께 수업에 참여했다. 수업에서는 아이비, 홍콩야자, 아프리카 바이올렛, 핑크스타, 페페로미아를 이용해 접시에 작은 정원(디쉬 가든 Dish Garden)을 만드는 법과 관리법에 대해 배웠다. 디쉬가든은 관리하기에 따라 하루만에 죽을 수도 있고 평생을 살 수도 있다고, 정원 수업이 다 끝나고 나서는 자연스럽게 평소 주민들이 궁금해 하던 화단관리법에 대한 질의응답으로 이어졌다.

디쉬 가든 만드는 법

1. 적당한 크기의 접시와 좋아하는 식물 4~5개를 준비한다.
2. 준비한 식물들을 접시 위에 잘 배치하고(키가 작은 식물들은 앞에 큰 식물들은 뒤에) 흙을 얹어 각 식물의 높이를 조절한다.
3. 마사토로 식물들을 덮어준 후 그 위에 이끼를 깐다.
4. 진짜 정원의 느낌이 나도록 바윗돌을 싣고 작은 돌로 길 모양을 내주면 끝.

아쿠르트 배달하시면서 손바닥 정원 만들기 수업을 알게 되었다는 '태평4동 아쿠르트 아줌마'의 소감.

“예술해서 나쁠게 어딴어요? 하고 나니까 수양도 되는거 같고 좋아요.”

“근데 이거 자꾸 가지고 다니니까 동네 아줌마들이 자기 달라고 그래서 미치겠네.”

“이거 언제 또 해요? 사람들이 자기도 하고 싶다고 자꾸 물어봐~”

02 • 디쉬 가든 만들기 교실



“이런 것들이 정말 재미있고
그리고 내가 만든 것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파될 수 있
다면 정말
기쁘다.”

화단 시상식

● 2015년 화단상 수상자

9월 말부터 화단이 예쁜 집을 다니며 직접 신청서를 나누어주기도 하고 태평4동 주민자치회를 통해 홍보를 한 결과 총 15집이 화단 시상식에 응모하였고 이 중 3명에게 화단상 수상의 영광이 돌아갔다. 시상식은 11월 17일 동사무소 내 주민자치센터에서 조촐하게 진행되었고 상품은 태평4동의 꽃집에서 꽃을 구입할 수 있는 10만원 상품권이었다.

영광의 수상자

김희순 (태평4동 252번지)

이기선 (태평4동 237번지)

이병상 (태평4동 175번지)

귀하는 일상 속에서 화단을 정성스레 가꾸어 태평4동의 골목길을 아름답게 가꾸었기에 주민들의 마음을 모아 '작은 화단상'을 수여합니다.

이병상 할아버지의 수상 소감

70년대에 태평동에 와서 이곳에 살지도 벌써 40년이 넘었다는 이병상 할아버지. 그 당시 가건물이었던 집 앞에 현재의 화단을 손수 시멘트로 만든 것이라곤 한다.

"늙으면 뭐해요, 이런 거라도 키워야지. 자식들 다 출가시키고 화초 키우는 재미로 살아요." 여름에는 2층에 있는 안개꽃이 활짝 피서 정말 예뻐다면서 지금 못 보여주는 걸 아쉬워하셨다.

"나는 화초면 뭐든 다 키울 수 있어. 화초가 나한테는 애들하고 똑같아서 안 아끼는 놈이 없고 누가 앞이나 꽃을 따면 내 손가락 부러뜨리는 거랑 똑같이 아파요. 화초는 정성이예요." 이병상 할아버지의 화초에 대한 애정은 정말 남다르다. 이번에 수상한 상품권으로는 야생화를 구입해서 키워보고 싶다고 하신다.

● 2015년 화단상 수상자



한편 "귀하는 일상 속에서 화단을 정성스레 가꾸어 태평4동의 골목길을 아름답게 가꾸었기에 주민들의 마음을 모아 '작은 화단상'을 수여합니다." 태평4동 동사무소에서 상을 받고 있는 김희순, 이병상씨와 이기선 할아버지의 작은 화단



찰칵! 움직이는 사진관

움직이는 사진관 프로젝트에서는 태평4동 노인들에게 골목길에서 즉석 스튜디오를 만들어 무료로 영정사진을 찍어드리고 능선길 93번지에 움직이는 사진관이라는 게릴라 전시관을 만들어 그 동안 찍은 영정사진 전시회와 1, 2차 촬영 때 사진을 못 찍으신 어르신들의 영정사진을 찍어드렸다. 골목길 즉석 스튜디오 촬영 때는 세트를 설치하면 동네 주민들이 우르르 물러나와 구경을 하기도 하고 “멋있게 하고 온 날 찍어야지, 이렇게 갑자기 찾아오면 어떡해~” 하시며 모두 안 찍으신다던 노인정 어르신들은 밖에 세트를 준비하고 나니 줄을 서서 사진 찍기를 기다리기도 했다.

“영정 사진 찍는다고 하면 자식들이 엄마 쓸데없는 소리한다고 못 찍게 할 거 같아서 내가 이거 찍어준다는 소리 듣고 얼마나 기다렸는데~” 라고 말씀하시며 하루에도 몇 번씩 영정사진 프로젝트의 사진 작가가 왔는지를 확인하시던 할머니도 계셨다.

기간 영정사진 제작 1차 촬영: 2006. 8. 7~8. 8
2차 촬영: 2006. 9. 18~9. 22
3차 촬영: 2006. 10. 21~22 (움직이는 사진관에서)

전시회기간: 2006. 10. 20~26
영정 사진 전달: 2006. 10. 27

장소 태평4동 동사무소 공터 및 골목길 및 움직이는 사진관

참여작가 임흥순, 인지혜, 황세준, 무한프커스

무한프커스 100만부 이상 판매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진동우회로 창간문화재단의 '가장한 문화경영' 사업과 연계하여 오랜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다. 동우회원들이 나와 지역내에서 주민들과 소통하여 문화경영활동을 펼치는 좋은 사례이다.

촬영: 임흥순, 인지혜, 황세준

촬영: 임흥순, 인지혜, 황세준



한 골목길에 즉석 스튜디오를 만들고 사진을 촬영하는 임흥순, 인지혜 작가
임흥순에서 촬영하는 사진 동우회 무한프커스 작가의 영정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영정사진을 찍어드립니다

촬영일 2006.8.7~8.8(화) 2006.9.22(화)



최정식 할머니(75세)

"지변에 한번 영정사진 찍어 준다고 젊은 사람들이 왔었다고 하던데 나는 그때 못 찍어서 언제 또 오나 기다리고 있었어. 오면 전화 준다고 해서 내가 하루 종일 밤에도 못 나갔잖아~"

"5남매 있는데 다들 춘천, 이리, 인천, 한 늬은 여기 같이 살고... 영정 사진 찍는다고 하면 자식들이 엄마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못 찍게 할 거 같아서 내가 이거 찍는다는 소리 안했어."

"내가 일찍 혼자 돼서 5남매 내 혼자 키웠지. 내가 마음 한번 잘못 먹었으면 5명 다 고아 만들었지. 허허"

(최정식 할머니는 영정 사진이 나오고 난 후 얼굴이 너무 크게 나왔다고 불평하셨다.)

정덕기 할아버지(77세)

"할머니 뭐 영정사진 찍는다고 해서 따라왔지.

이 나이 되면 건강하게 살다가 빨리 죽는 게 복이야, 복..

소원이 있다면.. 일하는거지. 일하고 싶어. 뭐 경비원이나 청소 같은 거 말이지. 그런데 젊은 사람들도 요즘 일자리 구하기가 힘들다는데 내가 뭘 말을 해."

조기모 할머니(74세)

"부모는 열 자식 거둬도 자식은 부모 하나를 못 거둬.

다 그런 거야. 여자로서 예쁘게 꾸미고 싶고 그런 마음, 그런 거도 이제 다 없제.. 태평동은, 사람들끼리 타닥타닥(?) 하지 않고 서로 그냥 오고 가고 하고.. 먹을 것 있으면 늬은이라고 불러다 먹이고 그러지.

태평 4동에 온지 벌써 25년이 넘었어. 여기가 뭐 고향이지."

촬영: 태평동에서 5월 21일 • 111

움직이는 사진관 (태평동 갤러리)

촬영: 태평동에서 5월 21일 • 111

움직이는 사진관은 농선길 93번지의 빈 가게를 개조해서 일주일간 그동안 진행되었던 골목길 영화제와 화단시상식, 그리고 영정사진, 우리 동네는 달랏 프로젝트의 결과물을 전시했던 일종의 갤러리이다. 영정 프로젝트를 통해 촬영된 사진과 화단 시상식 인터뷰 및 화단 사진, 미니 족마루 등을 직접 관람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골목길 영화제에 참석하지 못했던 주민들을 위해 조그마한 상영상을 만들어 영화제에 상영했던 영상물을 상영했다. 더불어 10월 21일, 22일 기간에는 사진동우회 무한포커스에서 1, 2차 기간에 영정사진을 찍지 못한 분들의 사진을 찍어드리는 행사를 진행했고 10월 23,24일에는 손바닥 정원 만들기 무료 강좌를 진행하였다.



이름: 박정민 / 나이: 20세 / 성별: 남

이름: 박정민 / 나이: 20세 / 성별: 남



이: 김지민 / 성명: 김지민 / 나이: 20세 / 성별: 여
이: 김지민 / 성명: 김지민 / 나이: 20세 / 성별: 여
이: 김지민 / 성명: 김지민 / 나이: 20세 / 성별: 여



태평4동 사람들의 일상, 좁은 골목길을 뛰어다니는 아이들, 대문 앞에 웅기종기 모인 화단, 오고가는 태평4동 사람들과 함께 살의 한 부분을 그려나가는 가게들, 무심히 벽에 써놓은 주차금지 경고... 성남에서 활동하고 있는 미디어공동체 늘봄과, 디딤돌 학교 학생들, 그리고 경원대학교 중심의 작가들이 태평4동의 좁은 골목길 속에서 주민들과 소통하며 그들의 생각과, 소통공간으로서 골목길에 대한 의미를 작가들 각자의 파스한 시선으로 카메라에 담았다. 그리고 이 영상물들은 10월 말, 동사무소 뒤 아담한 공터에서 '골목길 영화제'란 이름으로 다시 태어났다. 태평4동만을 위한 다큐멘터리로, CF로, 그리고 특별한 것 없는 사람들의 아주 특별한 이야기가 펼쳐지는 인생극장으로.

제작 기간 2006. 9-10월 중순

영화제 일시 2006. 10. 20(금) / 21(토) / 22(일) 저녁 8시

촬영 장소 태평4동 골목골목, 구석구석

영화제 장소 태평4동 동사무소 뒤 공터

행사구성

영상 제작

상영, 주민생활, 골목길 특징을 보여줄 수 있는 영상 제작5편

골목길 영화제

제작한 영상과 함께 주민들이 가족과 함께 볼 수 있는 영화를 다양한 공간에서 상영

참여작가 성남영상미디어공동체 늘봄, 디딤돌 학교 학생들, 민지애, 황서준, 김소정, 함현선, 임홍순

디딤돌학교 성남 지역 학교 및 청소년 대안학교 14곳과 태평4동에 위치

상영영상미디어공동체 늘봄 7~9시 10:30을 다룰 수 있는 전기를 생애전에 지역 골목에 속해서 사는 사람들의 존엄성을 위해 2005년 2월 만들어진 미디어공동체



태평4동을 카메라에 담다

태평4동 영상 제작

"백 이야기" 성남 수정구에 있는 탈학교 공동체인 디딤돌학교 아이들이 태평4동을 돌아다니면서 벽에 쓰여 있는 낙서들, 소풍의 흔적을 담았다.

"태평4동 사람들 이야기" 성남에서 활동하고 있는 미디어공동체 늘봄이 태평4동 주민들의 이야기를 따뜻한 시선으로 담은 짧은 인터뷰 기록.

"태평4동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 태평4동 골목마다 보물찾기처럼 팔걸할 수 있는 화단 이야기와 화단을 자식처럼 가꾸는 주민의 이야기가 펼쳐진다. (민지애, 함현선, 김소정)

"옥진사 사장님을 소개합니다" 동네에서 옥진사라는 세탁소를 운영하는 세탁소 아저씨의 파란만장한 일생을 담은 다큐멘터리 (황서준 작가)

광고 제작

화려한 수상경력을 자랑하는 20년 전통의 대성이발관 아이들이 직접 그린 메뉴판을 전시해놓은 꼬치열전
볼어로 하얀 상단절이란 뜻의 '브랑쉬노엘' 제과점

※ 태평4동을 돌아다니며 화단에 벽에 낙서를 한 아이들의 사진은 7/27일
※ 꼬치열전 CF 촬영 후 아리랑은 자지들이 나오는 사람들의 사진도 많이 남다.



개봉박두~! 태평4동 골목길 영화제

태평4동, 태평골목길에서 눈앞의 • 118

2006년 10월, 73개국 307편의 영화가 초청, 총 666회 상영되고 총 관객수 19만 2천 970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부산국제영화제가 있었다면 성남시 수정구 태평4동에서는 3일 동안 채 100명도 안 되는 관객동원을 하였지만 그 어떤 영화제도 부럽지 않았던 태평4동 주민만을 위한 “골목길 영화제”가 있었다.

골목길 영화제에서는 동네사람들 모두가 주인공이 되고 동네 곳곳의 풍경이 영화의 풍경이 되었다. 따라서 진정한 우리들만의 축제였다. 이처럼 우리끼리의 천국은 불이 꺼진 동사무소 뒤 조그만 공원에서 그렇게 시작되었다. 영화제의 좌석이었던 돛자리 댠 앞에 앉아 떡볶이를 먹는 아이가 스크린 안의 주인공으로 나오는 것은 지켜보는 나에게도 참 특별한 경험이었다.

한지희씨 인터뷰

10월 20일 금요일

애니메이션

세탁소 아저씨의 인생극장 68분/황사현

이탈스CF 18분/안재

플라로이드 직동업 Outlines 20분/안민/김종민

호랑이 무문책 CF DV 68분/25분/김민/김민

신학 35분/10분/김민/김민

10월 21일 토요일

애니메이션2

태평4동에는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다

48분/김민/김민

불당서노예CF 18분/안재

백야하기 58분/학교로 184년 공동체 디자인학교 학생들

나미아미타불 16분/10분/김민/김민

전쟁영화 35분/22분/김민/김민

10월 22일 일요일

애니메이션3

성남프로젝트 활동기 58분/안재, 김종민, 황사현

고치열전CF 18분/안재

태평4동 사람들 58분/김민/김민

아빠가 필요해 Beta/10분/김민/김민

생각해서 좋은 날 16분/30분/김민/김민

태평4동, 태평골목길에서 눈앞의 • 119



영화제 뒷 이야기

영화제 뒷 이야기

골목길 영화제가 시작하던 날, 영화제는 8시에 시작하고 영화제를 준비하는 팀은 설치에 분주한 가운데 한 할머니가 7시부터 골목길에 앉아 계신다. 첫째 날은 그저 그러려니 하고 지나쳤는데 날씨가 제법 쌀쌀하던 둘째날 7시에도 그 할머니가 여전히 골목에서 영화제를 기다리고 계셨다. 아마도 7시 전부터 계속 그러고 계신 것 같았다.

"어, 할머니, 아저씨 오셨어요?"

"응"

"영화제는 8시부터 시작이에요. 왜 이렇게 일찍 오셨어요?"

"지금이 몇 시예요?"

"7시예요."

"어."

"혼자 오셨어요?"

"아니, 다른 일반 하나 또 올거야. 밤에 걷고 온다고 했어. 근데 자리가 여다가 좋아? 여기가 잘 보이냐 지기가 잘 보이냐?"

"여기가 잘 보일거 같아요. 근데... 할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나 86살. 하하"

"와, 그래도 밤에 영화제도 보러 오시고 정정하시네요."

"난 정정한 게 문제가."

"날씨가 추운데 여기서 계속 기다리실 거예요?"

"난 머리가 밤해주면 밥 먹고 그냥 나와서 막 돌아댕겨. 그러다가 밤 늦게 들어가서 바로 자야지."

"집에 계시기 불편하시지 그러세요?"

"편하자야 않지. 내가 집에서 뭐 일을 하나... 그냥 밥만 먹고 나오면 막 돌아댕겨."

"할아버지는요?"

"내가 15살 때 결혼해서 아이 셋 낳고 20살 되던 해에 남편이 죽었지. 상갓집에 갔다가 음식 잘못 먹고 병 얻어서 그렇게 됐어. 남편 죽고 나니깐 남편 할로 빛이 있어서 내가 애들 셋 키우면서 빛 갖고... 그랬지."

"고생이 많으셨어요. 혼자 어떻게 애들 셋이나 키우셨어요..."

"서울에서 머리에 이것저것 하고 달기면서 팔았지. 그래도 큰애가 9살이어서 그놈이 아예 동생 둘 돌봐주니까 내가 돌아댕겼지."

"성남에는 언제 오셨어요?"

"온지 오래됐지. 20년도 더 된 거 같은데. 아들이 택시운전 하는 데 아들이 성남으로 간다니까 나도 왔지. 왜 왔지는 모르겠어."

"영화는 재미있으셨어요?"

"재미는 무슨... 그냥 나와서 구경하는 거지. 나는 구경이라든가 할 장려~"

이렇게 할머니와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생타길 장난꾸러기 3명이 다가온다. 아프리카에서 매년 작가들을 귀찮게 하던 초등학생과 여학생 3명. 꼬치열린 광고를 찍을 때는 꼬치열린 안에서 따돌림 있고 휴먼 만화가를 괴롭힐 때는 만화가계에서 작가들 귀찮게 하고 있고 mbc에서 촬영했을 때는 그 피디 앞에 붙어서 자기 찍어달라고 아우성치던 천방지축 3인방.

그런데 갑자기 이 아이들이 할머니한테 오더니

"할머니 저희가 안마해드릴게요"

라고 하더니 셋이 단합하여 할머니에게 안마를 해드린다. 태평동 아이들에게는 서울, 소위 강남 아이들에게서 느낄 수 없는, 장난꾸러기여도 도무지 미워할 수 없는 그 무엇이 있다. 그렇게 태평4동의 밝은 골목길 영화제와 영화제를 기다리던 86세의 할머니와 태평4동에 무슨 일만 있다면 나타나는 소년3인방과 함께 무르익었다.

영화제 뒷 이야기



1. 할머니의 사진 (대안사 서점앞에 소재함교) 거울에
2. 골목길 영화제 모습
3. 할머니가 안마를 해드리고 있는 태평동 소년 3인방



예술, 태권도에서 느낀다

- 01. 따뜻한 마음을 선물한 사람들
- 02. 태권도, 그리고 공공미술
- 03. 언론보도
- 04. 태권4동원 참가 특별한 것이 있다



따뜻한 가을을 선물한 사람들

10월 28일 토론회를 마지막으로 상남 태평4동 프로젝트를 마무리하고 상가를 정리하고 철수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저희가 떠나는 시간까지 끝까지 함께 해주신 이정수씨, 가는 길이 시원하지도 외롭지도 않게 마지막 사진촬영까지 함께 해 주셨던 너무도 감사한 정수씨, 뭐라 고마움을 전할 수 있을까요.

감사한 마음이 한 움큼인데, 바로 전해 드리지 못해 늘 아쉬운 마음 뿐입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동안 늘 보이지 않게 큰 도움을 주셨던 게임월드 사장님.^^ 삼터 작업을 하는 동안 혹여 바닥이 더러워지지 않았을까 작가들이 작업하는데 불편하진 않을까 직접 끌고 닦고 정내 주셨던 사장님, 너무 너무 감사드려요~ 아트를 립 상가를 사용하는데 불편함 없도록 늘 걱정해 주셨던 낙원상가 사장님, 그리고 바로 앞에서 늘 신경 써 주시던, 마지막 가는 날까지 큰 힘이 되어주셨던 월드마트 과장님, 과장님이 직접 타 주셨던 커피가 너무 그림습니다.^^

아침 일찍 '커피 마실 사람~?' 하며 저희도 꼭꼭 챙겨주셨던 과장님을 비롯한 월드마트 직원들, 작업하는데 방해 안 되게 하겠다며 열쇠까지 믿고 맡기시며 작업하도록 해주셨던 예술적으로 열의가 있으셨던 민숙주점 사장님, 그림고 그리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태평 4동을 위해 늘 노력하시는 봉장님, 깨끗하고 따뜻한 태평4동을 위해 많은 일을 해주세요.

와합어념처럼 늘 반갑게 저희를 맞아 주셨던 손바닥가게 할머니.

추운겨울 아프신데 없이 늘 건강하시야 해요, 따뜻한 겨울이었으면 좋겠어요.^^

늘 뭐라도 먹고 가라며 꼭 부르셨던 Mr. oxxi 사장님, 그 마음으로도 늘 감사해요~ 우리의 멋진 두부가게 아지씨^^, 진짜 예술가가 아닌가 싶으신 멋진 아지씨의 구수

태평4동 상가 입주자대표회의

태평4동 상가 입주자대표회의

한 노릇소리가 너무 그리워요, 해해

고생한다며 늘 걱정해 주셨던 어수식당 사장님, 아직도 어수식당 사장님께서 해주신 음식 생각만 하면 입안에 침이 고입니다, 꼭꼭 맛있는 닭도리탕 먹으러 다시 갈게요.

철수하는 날 멋진 공연까지 보여줬던 켄마을 사장님과 부동산 사장님 식구들, 멋진 공연 아직도 기억에 남네요.

프로젝트 기간 내내 늘 언니처럼 어려운 부탁도 다 들어주셨던 너무 감사한 꼬치열전 언니들, 너무 보고 싶어요, 그 맛있는 꼬치의 맛도 그림네요.

무뚝뚝하시지만 늘 따뜻한 미소로 반겨 주셨던 종로본식 부부 사장님, 공짜로 만화책도 빌려 주시고 마지막 날 너무 아쉽다며 놀러 오라고 인사 남겨주셨던 흥년 만화 사장님, 우리 전야를 아줌마, 이팔소 사장님, 부식가게 사장님.....

태평4동에서 힘들었지만 따뜻하게 보낼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 사장님들 덕분에인 것 같아요, 어디서 뵈 하든지 사장님들과 따뜻한 태평4동이 기억날 것 같아요, 날씨가 갑자기 많이 추워졌는데 감기 조심하시구요, 태평4동에서 저희가 한 모든 일들을 기억해 주실 분들은 사장님들 밖에 없을 것 같아요, 늘 함께 생활했었고 직접 눈으로 보셨으니까요, 그만큼 짧은 시간이었지만 태평4동과 많은 일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정이 오고 갔다고 믿고요.

꼭 찾아뵙게요.

늘 가슴속에 아쉬움과 그리움이 남아있습니다.

2006년 10월, 가장 따뜻한 가을을 선물해 주신
분들이 너무 그림습니다.

김자영 작가



2 태평동, 그리고 공공미술

“太平洞에서 同樂太平하세” 행사가 끝났다. 성남문화재단의 문화정책 5개 사업 중 2006년 완년에 시행된 두개의 사업 즉,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과 “성남인의 창작 진흥 사업”이 태평4동이란 지역 공간에서 연결되어 벌인 사업 명칭이 “태평동에서 동락태평하세”이다. 문화재단 쪽에서는 문화정책 사업으로 부르지만 여기에 참여한 미술인들의 시각에서 보면 이것은 공공미술 사업이다.

공공미술이라면 도심의 빌딩 앞이나 공원 등에 세워진 야외 조각 작품을 연상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행사가 공공미술이라는 말에 잠시 의아해 하실 수도 있겠다. 우리나라에선 공공미술하면 이런 야외 조각품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언제부터인지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일정 면적 이상의 건축물 공사비의 1%를 미술장식품 설치에 사용해야한다는 법령이 시행되면서 공공미술은 이런 조각품을 지칭하는 것으로 굳어진듯하다. 그런데 이렇게 미술 장식품이 강제성을 띠고 실행됨에 따라 부정적 현상이 많이 생겼다. 소위 뒷거래(리베이트)라는 것, 그리고 미적 수준이 떨어지는 작품들의 양산 등이 그것이다. 미술 작품의 제작이 작가들의 경제활동(그냥 쉽게 말하자, 돈벌이 수단)과 지나치게 밀착됨으로써 나타나는 우려스러운 현상이다.

공공미술의 역사 속에서 보면 이런 야외 조각품으로서의 공공미술은 초기 단계이다. 소위 공공장소 속의 미술(art in public space)단계이다. 미술관이나 화랑 안에 존재하던 작품을 좀 크게 키워서 야외 즉 공공장소에 내놓는 것을

태평동에서 동락태평하세

태평동에서 동락태평하세

말한다. 이런 공공미술의 미덕을 꼽자면 화랑이나 미술관의 문턱을 넘지 않고도 미술 향가를 거러나 공원에서도 접해 볼 수 있다는 점일 것이다. 그러나 미술이 점점 미술가 개인의 개인적 독창성이 곧 창의성이며 창조적인 것이라는 소위 모더니즘적 미술관이 굳어지면서 미술이 대중의 취향과는 무관하게 전개되어 나가자 공공장소 속의 미술은 문제가 될 수도 있음이 드러났다. 화랑이나 미술관에 있던(혹은 있어야 마땅한) 작품을 그대로 명치를 키워서 밖으로 내놓아보니 대중의 눈에는 그 미술품이 거기에 어울리지 않고 한구루의 아름다운 나무보다 못해 보일 수도 있었던 것이다. 많은 야외조각품으로서의 공공미술품이 시민들에 의해 훼손을 입는 것을 우리는 이런 각도에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외국의 사례로는 작품이 통행에 방해된다하여 시민들이 재판을 걸어 철거시킨 경우도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훼손이나 재판을 거는 경우보다는 무관심 속에 그냥 방치되어 스러져가는 경우가 많다. 미술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 더 우려스러운 현상이다. 싫으면 싫다는 뜻을 훼손하는 방식이든, 재판을 거는 방식이든 표현 한다는 것은 그래도 거기서 뭔가 희망을 엿볼 수 있지 않은가? 그때 그림 당신들이 원하는건 뭘때? 라고 물을 수 있으니 말이다. 무관심한 시민, 이것은 좀 절망적이지 않은가?

대개 이럴 경우 소위 모더니즘 미술은 시민을 탓한다. 다시 말해 고상한 모더니즘 현대미술을 시민 대중이 이해 못한다고... 그래서 훼손하기도하고 무관심하기도 하고 재판을 걸기도 한다고 말이다. 공공미술은 이 지점을 반성한다. 아! 시민 대중이 무식하다고 탓하지 말고 모더니즘 미술, 바로 ‘내 탓이오’라고 반성하고 그들에게 “넌러가자” 라고... 아마도 이런 맥락에서 공공장소로서의 미술(art as public space)이 발생한 것이 아닐까? (민거나 말거나...)

“공공장소로서의 미술”은 “공공장소 속의 미술”이 무관심 했던 혹은 간과했던 장소(site specific)를 우선 고려한다. 특정 장소 그 자체를 미술의 출발점이자 내용으로 삼게 되면서 작품이 놓이는 장소와는 무관하게 언제나 독립적으로 자기를 내보이던 미술, 즉 모더니즘적 현대미술은 그 특권과 엘리트주의를 버리고 자신이 무시했던 주변 공간을 돌아보며 좀 겸손해 지는데 대체로 주변의 건축이나 풍경과 소통하거나 그것과 하나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공공미술은 벤치, 테이블, 가로등, 댕크를 두껍, 펜스의 제작이나 기둥, 출입문, 바닥, 계단, 다리 등으로 참여, 흡수된다. 이렇게 시민대중에게 내려간 미술이 일부 모더니즘적 현대미술에 ‘오염’된 분들에게는 오히려 또 이상하게 보이게 되는 경우도 있긴 하다. 미술 전문교육을 받지 않아도 아무나 만들 수 있을 것 같은 벤치 만들기나 바닥의 색칠 이런 게 무슨 미술이냐고 하시며..., 공공미술이 이해받기는 이래저래 좀 어렵다.

그런데 공공미술은 여기서 한발짝 더 나간다. 더 겸손해진다. ‘미술전문 교육받은 사람만이 미술 작품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시민 여러분도 만드실 수 있어요’라고 말한다. 그리고 미술은 미술을 사랑해온 일부 고상한 교양인들만을 위한 게 아니라 ‘시민대중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에요’라고 선언한다. 이른바 시민대중의 이익과 관심에 부합하는 미술(art in public interest)이다. 이번 태평동 프로젝트는 이렇게 art as public space 단계와 art in public interest 단계에 걸쳐져 있다고 본다. 예를 들면 록마루 만들기, 그림고, 영정사진 찍어드리기가 그렇고, 골목길 영화제가 그렇고, “우리동네는 달라요”라는 어린이 미술교육 프로그램이 그렇고, 주민 창작 워크샵이 그렇다.

자, 여기까지는 좋다. 그러나 이제 여기에 참여했던 미술가들이 과연 우리들이 이번에 벌인 작업이 주민들의 삶에 도움을 주었는지, 주었다면 어떤 도움을 주었는지 평가해 보아야한다.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미술이 추구해야 할 “공동체의 기억”에 관한 연구는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또 그 지역 주민들에게 꿈을 제시해 주었는지를 물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행사가 한번 하고 끝나는 단발성이 되고 마는 것은 아닌지, 다시 말해 미술가들이 외부에서 와서 그냥 한번 그들의 공공미술 작업의 경력을 쌓고 빠져버리는, 이른바 치고 빠지는 수법에 그치고 만 것은 아닌지, 지역 미술가와 주민들에게 스스로 이와 같은 행사를 지속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었는지 등등을 자문하고 반성해 보아야한다.

또 하나 중요한 지점은 주민과 함께하는 공공미술(art in public interest)이라는 미명아래 미적인 완성도가 필요한 부분에서도 어설픈 아마추어리즘으로 호도하고 있지는 않은지도 우리 미술가들은 자문 해보아야한다. 공공미술은 공공성을 지닌 것, 즉 지역과 지역 주민을 위한, 지역 주민에 의한 것이기도 하지만 또한 전문 미술가들이 자신의 미적 소신과 감성으로 만든 미술작품이기도 한 것이다. 다시 말해 공공성이 추구하는 정치적 올바름과 더불어 미술가의 작품이라는 미학적 올바름이 현장에서 헛갈림 없이 분해되어 배치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공공미술가들이 정치적 올바름과 미학적 올바름 사이에서 헛갈리며 실패하는 경우를 종종 보며 걱정스러웠다. 이번 우리의 행사는 과연 어떠한지 냉정한 평가가 필요하다. 이러한 냉정한 평가를 통해 성년의 문화정책과 더불어 이 지역의 공공미술은 발전 할 수 있는 것으로 믿는다.

- 11.23 KBS1 <문화저널 1> 사정하고 줄거와 '도시 사라지는 골목에 대하여'
- 11. 3 MBC <뉴스데스크> '달빛네 그림아들'
- 10. 18 SBS<Q시뉴스> '골목 문화공간'
- 10. 11 MBC <문화사재> '잊혀진 시간, 거리의술로 부활하다'
- 11. 8 조선일보 '성남의 핫골목엔 art가 있다'
- 11. 7 문화일보 '백이 도록지 골목이 마을엔'
- 11. 1 한국일보 '골목길(마을)의 탄생, 우리 동네가 행복했어요'
- 10. 20 연합뉴스 '성남 주재가 골목에 문화바람'
- 10. 20 연합뉴스 '전통시장도 캔버스'
- 9. 26 한겨레 '성남 속 예술, 함께 가꾸자'
- 9. 25 조선일보 '우리 동네는 예술가들이 꾸어오'
- 9. 21 연합뉴스 '성남에 골목 문화공간 등장/성남에 성형예술가계'
- 11. 6 연합뉴스 ① '지갑속에 숨겨진 예술을 만났을 때'
- 11. 7 연합뉴스 ② '물다, 아쉽다, 시원하다, 보고싶다'
- 11. 8 연합뉴스 ③ '이제 씨앗을 심었으니, 주민예술가 지자체 지속적 관계관'
- 10. 30 경기매일 '성남문화재단, 태평4동서 워크숍, 민·관·학 관계자 모여 지혜나눔'
- 10. 30 경기일보 '성남 달빛네에 파인한 문화의 향기'
- 10. 28 내일신문 '태평4동 골목길, 문화가 있는 골목으로 재탄생'
- 10. 26 성남투데이 '태평4동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워크숍'
- 10. 26 리더 '직지판 큰 여유를 찾을 수 있는 읍촌길'
- 10. 25 경기일보 '동네 문화공동체 활성화, 신·구도심 양극화 해소'
- 10. 14 경인일보 '만남·소통·놀이, 살기 꾸미는 골목마을'
- 10. 9 분당D '태평4동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
- 10. 2 분당일요신문 '상징구미가·예술창터 등 문화놀이터 아트클럽 오픈'
- 9. 29 신도시라이프 '태평4동 문화놀이터 아트클럽 오픈'
- 9. 28 중부일보 '태평4동 문화놀이터 아트클럽 오픈'
- 9. 28 인천일보 '예술·탐사의 경계선에 서다'
- 9. 26 아시아일보 '성남 문화놀이터 아트클럽 오픈'
- 9. 20 성남뉴스넷 '문화놀이터 아트클럽 OPEN'
- 9. 13 성남투데이 '문화놀이터 아트클럽 오픈' 등

좌측: 태평동에서 노닐다 / 우측: 태평동에서 노닐다

4 "태평 4동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

예술, 태평동에서 노닐다 / 문화놀이터 '아트클럽' 호응 높아
우리 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성남인 창작진들 워크숍 열려

좌측: 태평동에서 노닐다 / 우측: 태평동에서 노닐다



"문화예술이 척박한 도시의 아이들이 다양한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체험의 기회와 경험이 없었는데 이번 성남문화재단의 프로젝트로 인해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고, 어른들도 금빛초등학교 담배약을 지나다니면서 무겁고 어두웠던 표정이 밝아져서 너무 좋아요"

태평4동 통장협의회 박진화 회장은 성남문화재단이 동네주민들과 함께 추진하던 '태평동 환타지 프로젝트(일명 태평4동에서 동라태평하세!)를 추진하면서 느낀 소감을 이와 같이 피력하면서 "동네 주민들이 일단 밝아지고 이번 행사에 참가하면서 주민들이 무엇보다 자신감도 회복하면서 많이 달라졌다"고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그러나 박 회장은 이러한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이번 행사가 일회성으로 끝나버린다면 주민들은 오히려 가슴 아파할 수 있을 것"이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를 지속적으로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을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라고 사후대책 마련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김민준 기자 2006/10/26 © 성남투데이

성남문화재단은 시민이 예술의 주체가 되어 동네의 독특한 매력을 찾아 새로운 문화를 만드는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과 '성남인의 창작진흥' 사업을 준비하면서 올해 처음으로 태평4동을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하고 지난 2달여 동안 진행된 태평동 환타지 프로젝트 사업에 대한 평가 워크숍을 지난 26일 오후 태평4동 주민자치센터 강당에서 개최했다.

성남문화재단이 '예술, 태평동에서 노닐다'라는 주제로 마련한 이날 문화예술 워크숍에서 성남문화재단 노재원 문화사업 국장은 '우리 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와 '성남인의 창작진흥'에 대한 내용과 성남문화재단의 5대 정책 사업에 대한 기초발제에 이어 '태평4동에서 동라태평하세!'에 참석한 작가들의 사례발표가 이어졌다. 박승현 문화기획부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워크숍에서 발표된 주요 사례로는 ▲동네의 문화특성 찾기(태평4동 주민과 만나는 예술가(가)들의 작업) ▲생활공간 속에서 만나는 미술(태평4동 주민과 만나는 예술가(가)들의 작업) 등 태평4동의 공간, 주민, 생활, 놀이의 4개 분야로 나뉘어 진행됐다. 기초발제와 사례발표에 이어 진행된 종합토론에서 이날 참석자들은 태평4동 통장협의회 박진화 회장이 지적한 지속성의 문제를 가장 큰 화두로 제기하면서 시와 문화재단이 지역의 문화예술단체를 비롯한 작가들과 함께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 마련과 사업지역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날 워크숍에서 아홉데 삼일이라는 "우리가 추진한 태평동 프로젝트는 문화도시 정책사업의 중요한 일환으로 진행한 것이고 주민 생활현장 속에서 문화예술의 향이 될 때 문화도시로서의 가능성이 살아 숨쉬는 것"이라며 "태평4동 시범마을을 선정해 우리문화 공동체 만들기과 창작진흥활동 사업을 진행한 것은 시민이 쉽게 문화예술을 접하고 예술창작의 주체가 되어 오늘날 프로그램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 스스로 우리 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45개동으로 확대해서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태평동 프로젝트에 결합한 영상미디어 공동체 '늘봄'의 이상훈 대표는 "태평동 프로젝트가 지역에서는 매우 반갑고 기대도 많이 했던 사업"이라며 "어떻게 지역문화발전을 이루어 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지역 내에 활동하고 있는 동화회사 문화활동 그룹들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과 함께 지속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성남 민예총 황정주 부장은 "민예총이 급변동화학교를 비롯해 태평동 20여 곳 등 벽화미술관 프로젝트를 통해 성남문화재단의 사업과 연계해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며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문화적 욕구와 소외, 접근성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문화 향수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시민공간대를 형성하기 위한 작업을 단체와 지역의 작가들이 결합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한 뒤 "주민들이 주인으로 참여 할 수 있는 문화예술정책과 현실 속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좀 더 확대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태평동 사례를 계기로 지역의 문화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나동근 작가는 "함께하는 문화공동체 만들기를 위한 구체적인 사례를 전파하기 위한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한다"며 "앞에서도 지적된 지속성의 문제와 함께 다른 동네로의 확산의 문제도 대두되고 있어 다른 지자체의 공무원, 예술단체, 지역 작가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지 네트워크 되어 문화예술공동체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핵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태평동 프로젝트에 결합한 정은영 작가는 "아이들에 대한 특별한 미술교육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나누는 계기가 자주 마련되어야 하고 아이들이 정에 굴주려 있는 반면 다른 아이들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커와 자질이 상당히 보이기도 해 자질을 유도해 낼 수 있는 조력자들이 필요하다"며 "일상생활속의 문화예술 교육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태평4동 아이들과 함께 '꽃목걸이에서 놀아보자'는 프로젝트를 추진한 정 작가는 따르면 예술교육은 어떻게 하면 그림을 잘 그릴 수 있나, 어떻게 하면 좋은 작품을 만들어 낼 수 있나, 특별히 낼 수 있나 하는 것이 아니다. 생활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예술 아닌 예술 작품들, 그것을 발견할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것은 여러 작품들에 잘 숙달된 직선적인 시각이 아닌 개개인의 마음이라는 것. 그런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벽화미술관 프로젝트에 참석한 성남 민미협 김성수(성남민예총) 대표는 "벽화미술관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작가들 사이에서 논란이 있었지만 철저하게 작가들의 눈높이를 주민들에게 맞추기로 하고 작가의 개입은 최소화하고 주민들이 좋아하는 그림을 주민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태평4동이라는 미술관에 설치한다는 것에 의미를 두면서 작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대표는 "프로젝트가 단기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 나터링을 통해 장기간 지속적인 연계사업을 추진을 해야 한다"며 "벽화 미술관 그림을 통해 어린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미술가에 대한 꿈을 키워나간다면 하는 감성을 가질 수 있다면 그 또한 매우 긍정적인 평가가 될 수 있을 것이고, 미술이 삶과 결코 분리되어 있지 않고 우리도 미술을 감상하고 즐길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주민들 스스로 자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화예술을 넘어 아트클럽을 운영했던 공공미술리플을 을다희 대표는 "공공미술하면서 주민들에 대한 상대를 보고 마음을 보는 눈, 지역을 읽어내는 눈이 달라야 한다"며 "향후 정책에 반영해 나갈 때 방법적인 문제도 중요하겠지만 지속의 힘을 가져야하고 정책이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하는 문제보다도 주민들에 대한 따뜻한 눈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한 뒤 "예술가와 행정, 주민, 재단이 서로 교감하면서 만날 때 따뜻하고 지속적으로 교감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태평4동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주민들이 많은 감동을 안

겨주었다"고 소감을 퍼력했다.

민자재 작가도 "주민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이번 사업이 앞으로도 참하면 즐겁고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지만, 아니면 위험한 일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며 "화단 가꾸기 등은 일상적인 것인데 주위에서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면 주민들이 기쁜 일로 다가설 수 있고 자신 개인이 아니라 함께 하는 공동체 문화를 만드는 즐거운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환기시켜주었다"며 "한편으로는 꽃목걸이 영화제, 움직이는 사진관 등이 주민들을 위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사치스럽고 과장되어 소모적인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때 조심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평가한 뒤 "시와 문화재단, 지역의 문화예술단체가 부족하더라도 생활 속에 주민들과 융화되는 것, 과장되지 않으면서도 동네 마을생활 속에서 오버하지 않고 주민과 함께 하면서 지속적으로 조심성을 가지고 접근해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외에도 김태현 미술작가는 "성남지역에서 프로젝트 사업 추진하면서 외부작가와 연계가 잘 안되고 있다"며 "다음 기회에도 이번 프로젝트에 참석한 외부작가들과 함께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과 지속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고민을 해야하고 무엇보다 지역에 근거해서 문제를 풀어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태평동 프로젝트 전반에 걸쳐 자문을 해 준 강원대 김용의 교수는 "공공미술이 우리나라에서 10여년 정도 일정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현재 공공미술 붐이 일어나면서 우려스러운 모습도 있고 공공미술의 의미와 공공미술이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나를 반추해보면서 조심스럽게 나아가 한다"고 전제한 뒤 "공공미술을 사랑하는 입장에서 이번 프로젝트는 상당히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일이고 앞으로 많은 과제와 고민을 던져주어 작업처리가 많아 앞으로 지속성의 문제를 고민해서 풀어 나가고 주민들 평가도 중요하지만 전체 프로젝트에 대한 미술인 내부의 평가 중요하다"며 지속성의문제와 함께 변화 모색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남 사회를 맡아 토론을 주관한 박승현 문화사업부장은 종합 토론을 정리하면서 "문화예술이 주민들의 생활 속에 친숙히 다가가면서 상남의 정체성과 공동체마를 만들기 사업을 이번 태평동 프로젝트를 매뉴얼화 해서 내년에는 아파트와 상가지역, 내후년에는 공단지역을 선정해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전개하고 상남지역 45개동 전 지역으로 확대하면서 사업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도시의 정체성을 확보하거나 문화도시를 만들어 나가는 것은 이런 태평동 프로젝트처럼 동네에서의 소중하고 밀접한 작업과 긴밀히 연계되어 있고 이런 프로젝트 통해 지역의 정체성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태평동 한타지 프로젝트의 의미를 부여했다.

한편, 상남문화재단이 태평4동에서 마련한 <태평4동에서 통학 태평하루> 프로젝트는 시민이 예술의 주체가 되어 동네의 독특한 매력을 찾아 새로운 문화를 만들기 위해 상남문화재단이 펼

치는 5대 정책사업 중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과 '상남인의 창작활동 진흥사업'의 첫 번째 술별로 생활과 예술의 만남, 소통, 놀이 등을 통해 생활 속에서 예술을 재생산하는 문화놀이터 바트클럽(생활예술상동)을 통해 3개월여 동안 준비해온사업이다.

바트클럽은 '예술과 생활을 연결하는 집게'란 뜻으로 실생활과 연계된 작품을 만들기 위해 예술가와 주민들이 만나는 곳으로 가게의 메뉴판, 골목길의 평상, 화단 등 주민들이 필요한 것을 신청을 받아 예술가는 주민들과 이야기 한다. 주민들은 함께 작업하는 과정을 통해 생활 속에서 예술의 즐거움을 경험하게 된다.

바트클럽의 주요활동으로는 상점 꾸미기, 예술방터, 골목길 술터 '책마루' 만들기, 화단식상식, 아이들과 골목길 꾸미기 등 공간, 생활, 놀이가 결합되어 이루어졌으며, 이 밖에도 영정사진, 골목길 영화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돼 주민과 예술가가 함께 만들어낸 다양한 생활예술품들을 태평4동 골목길 곳곳에 전시되어 부어프로그램이 운영되어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도와주신 분들..

강원대학교, 금빛초등학교, (사)상남문화재단, 상남농업기술센터, 상남민예총, 신구대학교, 태평4동 경시우회, 태평4동 주민자치위원회, 태평4동 상가분회와 주민 회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